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석사 학위논문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Proces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and  
Premarital Preparation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아 동 가 정 복 지 학 과  
김 현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김현

김현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송	혜	림	
심사위원	이	성	희	
심사위원	정	민	자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0년 2월

# 목 차

## <국문초록>

### I.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 문제 ..... 4
  - 1)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4
  - 2)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은 어떠한가? ..... 4
  - 3)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어떠한가? ..... 4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5

- 1. 결혼결정과정 ..... 5
- 2. 결혼준비 ..... 6
- 3. 선행 연구 고찰 ..... 7

### III. 연구 방법 ..... 9

- 1. 연구 대상 ..... 9
- 2. 연구 방법과 절차 ..... 10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11
-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 12

### IV. 연구 결과 ..... 14

- 1.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 ..... 14
  - 1) 여성의 결혼결정과정 ..... 14

2) 남성의 결혼결정과정 .....	30
2.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 .....	52
1) 여성의 결혼결정요인 .....	52
2) 남성의 결혼결정요인 .....	53
3.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 .....	56

## V. 논의 및 결론 .....59

1. 논의 .....	59
2. 결론 .....	63

참고문헌 .....	65
부록 .....	69
Abstract .....	76

## 표 목 차

<표-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
<표-2> 신혼여성의 결혼결정과정 .....	14
<표-3> 신혼남성의 결혼결정과정 .....	30
<표-4>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 .....	56

## 그 립 목 차

[그림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 .....	11
[그림 2] 신혼여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 .....	52
[그림 3] 신혼여성의 결혼결정요인 .....	53
[그림 4] 신혼남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 .....	54
[그림 5] 신혼남성의 결혼결정요인 .....	55

# 국 문 초 록

##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김 현  
지도교수 정민자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며,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혼은 가정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이자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는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고,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수가 증가하여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결혼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갈등을 겪는지 파악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을 행복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지 일련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U시에 거주하는 3년 이내 신혼부부 10쌍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와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에서 남녀 모두 동일한 5개 구성요소로 나타났으며, ‘결혼에 대한 생각’, ‘배우자 선택’, ‘갈등 단계’, ‘결혼 결정 단계’, ‘결혼 준비 단계’이다.

두 번째로,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은 배우자 선택 요인 및 결혼결정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배우자 선택 요인에서 여성의 순위는 성격, 직업/직장, 가정환경, 종교, 외모, 애정표현, 재산, 책임감, 취미, 가치관, 대인관계, 매력, 나이,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친밀감, 술·담배여부 순이다. 남성의 순위는 성격, 가치관, 외모, 가정환경, 건강, 성적 매력, 취미, 자립심, 대인관계, 성취욕, 정서적 성숙, 종교, 나이순이다. 결혼결정요인은 여성은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 결혼 후 역할 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 부모의 비용 지원, 결혼을 위한 소득 확보, 주위의 결혼 권유, 부모의 결혼 재촉 순이다. 남성은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 결혼 후 역할 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 부모의 비용 지원, 결혼을 위한 소득 확보, 부모의 결혼 재촉 순이다.

세 번째로,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절차 진행 여부와 주 결정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진행 여부는 양가 인사, 상견례, 택일, 리허설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은 모든 참여자가, 폐백 및 예복/한복의 경우 한 부부를 제외하고 모두 수행하였다. 현금예단, 현물예단, 봉채비, 꾸밈비, 함, 이바지, 답바지, 답례품은 선택적으로 수행하였다. 주 결정자는 양가인사, 상견례, 택일, 신혼여행, 예물, 봉채비, 답례품, 신혼집, 혼수는 부부가 주 결정자이며, 리허설촬영, 결혼식은 아내가, 폐백, 꾸밈비, 함, 답바지는 남편 부모가, 이바지, 현금예단, 현물예단은 신부 부모가, 예복/한복은 양가 부



모가 주 결정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년들의 성 평등 의식을 향상하여 성별로 인한 결혼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청년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필요하며, 가족 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부부와 부모를 대상으로 혼례가치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허례허식 없는 결혼문화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개선과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서의 경험을 살펴본 본 연구는 최근 결혼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과 진술을 바탕으로 결혼의 현상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고, 연구 대상자를 한 성별로 고정하지 않고 개인이 아닌 부부로 남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연속적인 경험을 파악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신혼부부, 결혼, 결혼결정과정, 결혼결정요인, 결혼준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어, 필수가 아닌 선택적인 사항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만혼<sup>1)</sup>과 비혼<sup>2)</sup> 현상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29.3%에 이를 정도로 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생의 큰 과업이며 국가적 차원<sup>3)</sup>에서까지 큰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의 청년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미국의 세대 전문가인 William Strauss와 Neil Howe가 1991년에 펴낸 ‘세대들, 미국 미래의 역사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라는 책에서 언급한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며, 대학 진학률이 높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하다. 또한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게임을 하면서,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식생활과 건강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소유보다 경험과 공유를 추구한다는 특징으로 소개되었다. 이러한 발전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느 세대보다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밀레니얼 세대지만,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사회에 진출을 시작한 이후 집과 결혼, 인간관계 등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한 지금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로 3포, 5포, 7포를 넘어 ‘N포 세대’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있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 세대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취업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한국의 혼인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혼인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에서 혼인 건수는 2011년 32.9만 건에서 2018년 25.8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조혼인율의 경우엔 2011년 6.6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통계청,2019). 2018년의 혼인율은 26만건, 조혼인율은 5.0건으로 전년 대비 0.2건 감소하였고, 1970년부터 조혼인율을 살펴보았을 때 역대 가장 낮은 조혼인율을 기록하였다. 평균 초혼연령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도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4세로 남녀 모두 전년대비 0.2세 상승하였고,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여 각각 남자 1.8세, 여자 2.1세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미혼자들의 결혼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 미혼자들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결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위해 자발적으

1)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함. 또는 그런 결혼(표준국어대사전,2008)

2) 결혼의 의미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미혼을 선택(박신애,2016)

3) 국정과제 48의 과제목표로 제시된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청와대,2019)

로 독신의 삶을 선택하거나, 현실적인 결혼준비의 어려움으로 비자발적 미혼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젊은이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결혼비용의 부담감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박신애,2016).

그러나 인간은 일반적으로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끊임 없이 관심을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정서적 관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합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나아가 자녀를 갖기 위한 동기도 있을 것이다(건강가정컨설팅연구소,2017).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의 형성은 결혼으로부터 비롯되고,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며, 그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게 된다. 즉 인간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욕구와 의무의 균형 속에 각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면서 성숙된 인격체로 완성된다. 그러므로 결혼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혼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족을 벗어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가족을 형성하는 전환점이며 출발의 의미가 있다. 또한 사회구성원을 생산하며 사회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김예리,2008).

결혼의 필요성에 대하여 20~44세의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미혼 남성과 여성 모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유보적인 답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수치는 아니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성별적인 차이로만 보기보다 청년층 전반에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또는 유보적인 태도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이상림,2019).

청년들이 결혼을 연기하고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결혼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많은 경제적 자원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미혼·만혼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전효연,2015).

또한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심화로 인해 해결 방안으로 혼인율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혼인율이 곧 출산의 해결방안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을 ‘출산의 도구’로 여겨서 지원하는 결혼 장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는다.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서 핵심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미혼화가 저출산 현상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오면서 미혼자의 증가로 인해 기혼부부가 감소하며, 이는 곧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화라는 인식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이는 지금까지 미혼율의 증가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문제적 현상’으로 이해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사회 청년 인구의 미혼화 현상을 결혼의 이행과 불이행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이해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세대의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한 논의도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 비

율의 감소 등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순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도 ‘결혼 기피’, ‘만혼화’, ‘전통적 결혼 가치관의 약화’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발견된다(이상림,2019).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하여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서 만혼과 비혼, 그 해결책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권하는 것이 아닌, 청년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족에서 독립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청년의 삶의 질과,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결혼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화 현상을 저출산의 해결 방안의 대책이라는 부분으로 여기거나, 그 원인을 특정한 가치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귀결시키는 환원론적 논의를 넘어서 결혼이라는 현상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들이 그 과업을 이행할 때 겪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직 미혼인 청년세대가 결혼 결정 및 과정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결혼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에 대하여 연구된 내용은 결혼관, 또는 결혼 지연의 원인과, 결혼 기피 현상 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결혼 전의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과정을 경험하며 결혼을 이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결혼을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들의 결혼 결정과정과 준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요인, 결혼을 준비할 때의 수행사항과 주결정자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예비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결혼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1-1)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1-2)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은 어떠한가?

### 2)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은 어떠한가?

- 2-1)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은 어떠한가?
- 2-2)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은 어떠한가?

### 3)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어떠한가?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 1. 결혼결정과정

결혼 결정은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으로(Adams,1980), 배우자 및 결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향후 결혼생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단계이다(유영주 외,1995). 사회에 따라 상이한 변인에 영향을 받으며 무자녀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형태에 따른 결혼결정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김형선,1997;김경원 외,2005). 결혼 결정은 직·간접적인 부모의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데(최신태,1979),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배우자의 경제력이나 가정환경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포함한다(김양희 외,2003).

장주영 외(2008)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결혼 과정은 그 시대의 가치나 문화, 규범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결혼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신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살펴봄으로 현재 한국 가족의 실생활에서 어떠한 규범적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자원 이론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혼 과정 중 결혼 절차, 예단, 예물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가족주의 가치, 결혼 총비용의 주부담자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유형은 당사자 주도형이 가장 많았으나 결혼 가정 전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결혼 절차와 예물 의사결정에서는 당사자 주도형 다음으로 신랑 부모 주도형이 높게 나타나 좀 더 부계 중심의 결혼 과정 의사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단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신부 부모 주도형이 높게 나타나, 주로 신부가에서 신랑가에 선물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단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결혼결정과정의 갖는 속성에 따라 다양한 의사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 과정 즉, 결혼 절차, 예단, 예물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 전체 결혼 과정 속에서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결정이 갖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결혼 절차 의사결정에서는 신랑의 결혼 연령, 가족주의가치, 결혼 총 비용의 주부담자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랑의 결혼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랑부모보다 당사자 주도형일 승산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절차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결혼 과정에 대한 결정들은

과거에는 그 절차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자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으나(김신연,2005;홍나영 외,2002), 현재는 이에 대해 어떤 규범이나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지 규명된 바가 없으며 단지 양가 사이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견해(김은희,1994;박선웅,1999;조희선 외,1999;Kang,1991)가 있을 뿐이며, 결혼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 결혼 절차의 결정과 예단의 결정 및 예물의 결정은 가장 갈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과정이다(김명나 외,1999;김모란,1995;박민자,1991;박숙자,1991;이현주 외,2003). 전통사회에서는 결혼 절차의 진행에 대한 관습과 규범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결혼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관행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택일이나 결혼식 장소의 결정 등 결혼 절차와 관련되는 많은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이 당사자 및 양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 2. 결혼준비

결혼준비는 일반적으로 결혼식의 절차나 혼수준비와 같은 결혼의례의 준비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 뿐 아니라 결혼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정서적, 인격적, 신체적, 경제적, 법적, 관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의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김혜선 외,2002).

결혼준비의 영역은 크게 개인적 준비 측면, 관계적 준비 측면, 결혼생활 준비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준비 측면은 성숙, 부모로부터의 독립, 건강으로 구성되며, 관계적 준비 측면은 애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및 이해, 유사성, 양립성, 보완성, 의사소통능력 및 갈등해결능력, 자율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생활준비 측면에서는 성, 결혼관, 결혼생활정보, 역할분담, 자녀출산과 양육, 재정관리, 양가가족에 대한 파악 및 이해 등의 세부영역이 포함된다(김혜선 외,2001).

또한 결혼준비에 대해서는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결혼준비교육은 시대적 욕구에 따라 목표가 변화되어 왔는데, 1970년대의 초기 결혼준비교육은 ‘신부강좌’ 등을 개설하여 예비신부들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돕는 요리, 예절, 가정관리, 교양 등의 능력을 교육하였고, 1980년대에는 결혼예비학교와 같은 종교기관 중심의 결혼준비교육이 실시되었다. 2000년대의 교육은 학문적 접근에 의하여 가족생활의 발달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부부 간의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주희 외,2009).

본 연구에서는 결혼준비를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에 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수행하였고 경험했는지에 대한 협의의 의미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과정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전통사회에서는 결혼 절차에 대한 규범이나 관습이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 절차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관행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결혼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신랑가(家) 중심의 결혼과정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장주영 외,2008).

또한 결혼 결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결혼결정과정은 결혼 전 서로의 관계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공통의 경험을 갖는 기간으로 배우자 및 결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향후 결혼생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는 단계이며(유영주 외,1995)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으로(Adams,1980), 가족의 의견, 혼기에 대한 압박감, 혼전임신, 결혼에 대한 현실적 준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결혼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홍구화 외,2012).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요인들에 대해 배우자 선택 과정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현송,1997;유가효,2007). 주로 배우자 선택과 관련하여 배우자 선택의 요인이나 조건 등에 대한 주제로 다루어져왔으며(이세란,2016), 결혼 적령기에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결정요인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권빛나,2010)가 진행되었다.

채민정 외(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관, 결혼결정과정의 구성과 가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혼여성에게 결혼현실은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고, 결혼결정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결혼결정형태, 결혼결정과정과 가족의 개입으로 분류하여 결혼결정과정의 유형을 상황에 몰린 결혼, 당위로서의 결혼, 만들어가는 결혼으로 분류하였다.

김지미(2014)의 연구에서는 신혼기 여성의 결혼준비 경험은 ‘부정적인 관계경험’, ‘결혼준비 행복함’, ‘긍정적인 관계경험’, ‘결혼에 대한 불안감’, ‘비교의식’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으며 ‘결혼준비’경험을 확대하여 결혼생활을 앞둔 이들과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이해를 도우며 그 의미와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미혼여성, 기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관(정차숙,2019, 채민진,2019, 정유화,2018, 박소현,2017), 배우자 선택 요인(윤유경,2018), 결혼 연기 요인(이동민,2018), 결혼의 계층화(권오재,2017), 결혼의향(정지혜,2017, 이정은,2018), 결혼만족도(최닷옴,2019, 백미희,2019, 이근환,2019, 한서은,2018), 결혼행복감(정유림,2019), 결혼준비교육(반수진,2019), 결혼포기(손지성,2017)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을 살



펴보았을 때 결혼과 관련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살펴보면, 예비부부(강연아,2009), 신혼기 여성(김지미,2014), 장애인(김형범,2009, 문승연,2011), 결혼이민여성(강유미,2009, 윤구원,2012), 재혼여성(권혁출,2014, 장현정,2010) 등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이세란,2016),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요인들을 분석한 양적 연구와, 다양한 연구 대상으로 결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에 결혼을 경험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참여자들의 결혼결정과정부터 준비과정까지의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경험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미에 대해 본질적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경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솔직한 진술을 알아보아 결혼에 대한 현상의 본질과 결혼결정과정과 결혼결정요인, 결혼준비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1) 연구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자발적으로 심층면접에 동의한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부부 10쌍이다. 연구 대상을 3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결혼결정과정에서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억적 한계와 그로 인한 조작적인 답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1>와 같다.

<표-1> 연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별	연 령	종 교	학 력	결혼당시 직업	결혼당시 월 소득	이성교제 경험횟수	교제 시기	결혼 시기	교제 기간
부부 1	남	30	무교	대졸	사무직	250-300	3회	2015 .08	2019 .04	4년 9개월
	여	26	불교	대졸	사무직	200-250	6회			
부부 2	남	32	무교	대졸	생산직	200-250	3회	2013 .04	2017 .10	5년 7개월
	여	29	무교	대졸	언어 치료사	200-250	3회			
부부 3	남	38	무교	대졸	기술직	450이상	5회	2016 .12	2017 .12	1년 1개월
	여	32	불교	초대졸	간호사	200-250	3회			
부부 4	남	28	무교	초대졸	생산직	250-300	3회	2014 .08	2018 .05	4년 10개월
	여	28	무교	석사졸	사회 복지사	150-200	4회			
부부 5	남	31	기독교	대졸	사무직	250-300	3회	2016 .06	2017 .09	1년 3개월
	여	30	기독교	초대졸	간호사	200-250	8회이상			
부부 6	남	35	기독교	대졸	사무직	200-250	3회	2016 .11	2018 .04	1년 6개월
	여	29	기독교	대졸	사무직	150-200	3회			
부부 7	남	33	기독교	초대졸	소방관	300-350	5회	2016 .11	2019 .01	2년 3개월
	여	29	기독교	대졸	기간제 교사	200-250	2회			

	성 별	연 령	종 교	학 력	결혼당시 직업	결혼당시 월 소득	이성교제 경험횟수	교제 시기	결혼 시기	교제 기간
부부 8	남	29	기독교	고졸	생산직	300-350	6회	2014 .04	2017 .11	3년 8개월
	여	29	기독교	대졸	영양사	200-250	3회			
부부 9	남	31	무교	초대졸	용접사	무응답	2회	2014 .10	2019 .05	5년 8개월
	여	32	무교	대졸	1인 사업가	250-300	3회			
부부 10	남	28	무교	대졸	프로 그래머	250-300	1회	2013 .05	2019 .09	7년 5개월
	여	28	무교	대졸	건강 가정사	200-250	3회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 10쌍은 모두 자유연애혼이다. 연령은 여성은 만 26세~32세까지이며, 남성은 만 28세~35세이다. 결혼 전 연애 기간은 1년 1개월부터 6년 4개월까지 다양하였으며, 연애 경험 또한 1회~8회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 2. 연구 방법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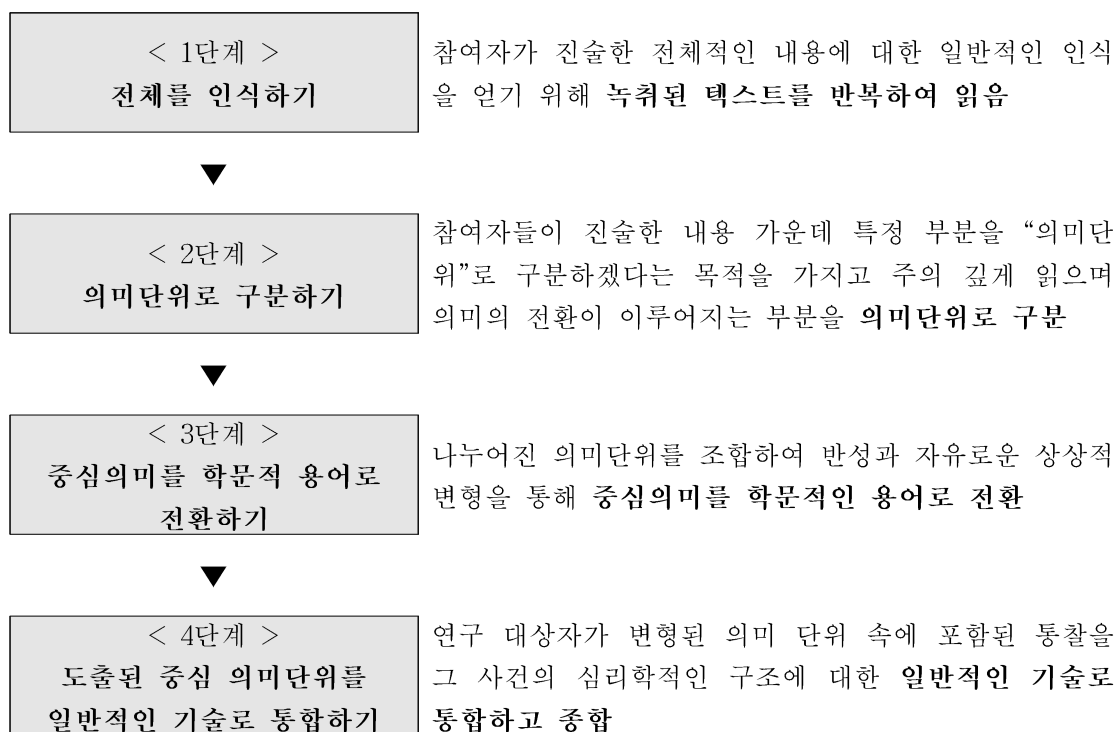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중 아메데오 지오르지(Amedeo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연구한 이유는 연구 문제의 특성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을 알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구 문제는 ‘왜,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적 연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양적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관, 결혼결정과정을 파악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는 도출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떤 상황과 요인이 그러한 행동이나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주제가 탐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결혼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혼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결정과정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질적 연구는 상황을 일반화하기보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연구 대상의 사고나 행동의 기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넷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심층 면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층면접이란 구조화되지 않은 직접법에 속하는 방법으로, 숙달된 면접자에 의하여 어떤 주제에

대한 응답자의 숨겨진 의도나 신념, 태도 느낌 등을 조사하는 개별면접 형태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이근희,2014).

본 연구에서 심층 면접이 필요한 이유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 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그 상황과 관계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이고, 다음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복합적인 결혼결정과 당사자와 가족들의 상호작용을 함께 다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혼결정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보다는 질적 연구 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와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절차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이며, 면담 시간은 부부 1쌍 당 90분~120분 내외로 하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가 근무하는 U센터 상담실1, 2 등 참여자와 함께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면접 전 연구의 주제, 목적, 인터뷰 내용, 녹음에,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 및 익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 연구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이에 동의한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결혼결정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 시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 비언어적 반응을 관찰하여 자세히 기록하였고, 내용분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 초기에는 참여자가 솔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한 다음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면담에 들어갔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연구자는 참여자가 떠오르는 경험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해 구체화나 명료화를 위한 질문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경험에 집중하려고 하였다. 면담 후 내용을 읽고도 경험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할 때는 전화나 메일로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참여자의 경험을 더 명료화하거나 추가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취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여 텍스트 자료로 만들어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참여자 모집, 참여자 선정, 면접 전 설명, 연구 동의, 비밀보장 및 철회가능성 안내, 인터뷰 및 녹음, 녹음내용 반복하여 듣기, 필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상황이 자세하게 드러나므로 윤리적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전 동의를 구하는 부분과 분석 및 기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윤리를 고려하였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연구 주제 및 목적과 내용 등을 밝히고 부부가 상호 협의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결혼과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결혼과 대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하여 결혼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며,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동일한 연구 방법의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구자의 조언을 얻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연구자에 대한 소개 후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연구 참여자에게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중에서 인터뷰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면담시간 및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 후 동의를 구하여 면담을 수행하고자 하였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과 구두로 약속하였다. 또한, 녹음 내용을 옮겨 작성할 때에는 익명처리를 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의 보안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연구가 끝나면 녹음 내용은 삭제하고 기록된 문서는 폐기처분할 것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비밀보장을 위해 녹음된 면접 내용을 전사하여 참여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특정한 기호로 표시하였다. 녹취된 파일 이름도 연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표시하여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

#### 1) 여성의 결혼결정과정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연구 결과로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에 대한 의미단위는 51개, 하위구성요소 19개, 구성요소는 5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는 <표-2>과 같다.

<표-2> 신혼여성의 결혼결정과정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음(1)</li> <li>- 결혼에 대한 호기심이 생김(10)</li> <li>- 원가족을 통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6)</li> <li>- 주변의 긍정적 영향(5,6,7)</li> </ul>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결혼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3)</li> <li>- 결혼으로 포기하는 것이 많음(9)</li> </ul>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시댁에 따라 본인 평가가 달라진다 생각(8)</li> </ul>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라는 것은 있어야 함(2)</li> <li>- 결혼에 대한 의문이 없음(5)</li> <li>-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불효(9)</li> </ul>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한 연애상대(3)</li> <li>- 배우자의 가정이 괜찮음(1,3)</li> <li>-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함(10)</li> <li>- 원가족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1,2,4)</li> <li>- 종교가 같음(8)</li> <li>- 취미가 같음(9)</li> </ul>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배우자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애과정에서 재미를 느낌(5)</li> <li>- 편안하고 원만한 연애 과정(6)</li> <li>- 이전 연애와는 다름(3,6)</li> <li>- 상대를 통해 경험하는 것에 만족함(10)</li> </ul>	행복한 연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성친구에게서 채울 수 없는 부분(6)</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에 대한 부담감(1)</li> <li>- 일과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6)</li> <li>-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6,9)</li> <li>- 또래 친구와의 비교(5)</li> </ul>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	갈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4)</li> </ul>	금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7,8)</li> <li>- 상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음(4)</li> <li>- 연애 기간에 대한 고민(6)</li> </ul>	확신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로 가야하는 것에 대한 걱정(1)</li> <li>- 결혼 시기를 이르다고 생각(3)</li> <li>- 배우자를 탐탁치 않아함(4,6,8)</li> <li>- 시댁 식구의 질투(1)</li> <li>- 시부모님이 반대함(8)</li> </ul>	가족의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음(1,2,5)</li> <li>-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부담(8,9)</li> </ul>	연령	결혼 결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음(6,8,9)</li> </ul>	상대에 대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진행(1)</li> </ul>	자연스러운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감에 대한 욕구(1)</li> <li>- 자립에 대한 욕구(4,7)</li> <li>- 원가족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음(5,7)</li> <li>- 직장생활 권태기로 전환이 필요함(5)</li> </ul>	전환기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들이 결혼을 서두름(5)</li> <li>- 배우자가 결혼을 서두름(6)</li> <li>- 사주에서 시기를 이야기 함(1)</li> </ul>	가족의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가가 원하는 부분이 다름(2)</li> </ul>	양가 사이에서 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견례 이후 만나서 함께 준비(2)</li> <li>- 부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6)</li> </ul>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	결혼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선택의 기회를 부부에게 줌(1)</li> <li>- 부모가 자녀 결혼에서 바라는 것 없음(3)</li> <li>- 부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준비(6)</li> </ul>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도출된 하위구성요소 19개, 구성요소 5개는 아래와 같다.

## 구성요소 1. 결혼에 대한 생각

여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으로 분류되었다.

### 1)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여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는 먼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의미단위로는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음(여자 1)과, 결혼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으며(여자 10), 원가족을 통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경우(여자 6)와,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여자 5,6,7)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날거면 빨리 하고 싶다.(여자 1)*

*로망같은 것도 있었고, 또 약간 궁금한 것도 있었고. 결혼을 하면 안정이 됐다,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니깐 뭐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 하는 궁금함도 있었고.(여자 10)*

*저희 가족이 되게 화목한 편이거든요. 물론 싸우실 때도 있지만 비교적 원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여서,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보통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여자 6)*

*친한 언니가 26살에 결혼하고, 제가 25살에 부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여자 5)*

*교회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편이고, 결혼하신 분도 많고 하니깐 결혼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결혼의 행복한,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여자 6)*

*전 직장에는 저 빼고 거의 다 결혼을 하셨었는데 그 분들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이 되게 긍정적인 그런거고 주변에서도 다 빨리 결혼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게 하더라고요.(여자 7)*

## 2)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반면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고 답변한 참여자도 있었다. 의미단위로는 결혼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음(여자 3)과, 결혼으로 포기하는 것이 많음(여자 9)의 의미가 있었다.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여자 3)

부정적이었어요. 최대한 늦게 해야지. 하긴 해야 하는 사회적인 통념은 있는데, 아가씨 때의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최대한 늦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여자 9)

## 3)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은 결혼을 통하여 본인의 상황적, 외적 요인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결혼 이후에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생겨 남편/시댁에 따라 본인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여자 8)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시댁에 대한 기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함으로써 갖게 되는 시댁, 신랑의 타이틀. 여자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시댁이 컸던 것 같아요. 또 신랑은 뭐 하는지. 그런 게 외형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여자 8)

## 4)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 하위구성요소의 의미단위로는 결혼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다(여자 2)는 의미와, 결혼에 대한 의문이 없었으며(여자 5)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여자 9)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인생에 있어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면서 결혼도 해보고, 임신, 출산도 해 보고...(여자 2)

특히 결혼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태어나고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자녀를 낳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여자 5)

지금 내 모습은 저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애지중지 하던 딸이 홀로 노처녀로 늙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불효일 거고, 아기 없이 또 부부끼리 사는 모습 또한 불효일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혼과 아이 같은 부분은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것도 컸던 것 같아요. 또 외동이다 보니 더 컸던 것 같아요.(여자 9)

### ■ 요약

첫 번째 구성요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다. 여성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하위 구성요소와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괜찮음, 결혼에 대한 호기심, 원가족을 통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경우, 주변의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와, 결혼을 하는 이유를 모르거나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또한 남편이나 시댁에 따라 본인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여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은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결혼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불효라는 생각으로 나타났다.

## 구성요소 2. 배우자 선택

두 번째 구성요소로 결혼결정과정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지만 크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행복한 연애 과정’, ‘외로움’으로 인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 1)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성들은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의미단위로는 상대에게서 느끼는 편안함(여자 3)과 배우자의 가정환경이 괜찮은지를 평가하였고(여자 1,3),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여자 10), 본인의 원가족과 비교하였을 때 좋은 점이 있는가(여자 1,2,4), 종교(여자 8) 또는 취미(여자 9)와 같이 서로 동일 요인이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로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상대방이 외부로 나타나고 보이는 부분과, 자신과 상대방의 유사한 부분, 상대방의 내면의 부분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만나는 동안에 남편이 되게 편했었고, 싸우는 게 없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도 만나 뵈었을 때도 부모님들도 괜찮았어요.(여자 3)

자신이 없다가도 남편을 보니까 남편 부모님한테 성격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이런 모난 부분이 완화될 것 같고, 흡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여자 1)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같이 병문안을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늦게 마쳐서 못 갈 거 같다 했는데, 그때 남편이 혼자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가서 기타도 쳐주고, 어머니한테 ‘제가 챙겨드리면 되죠.’ 하면서. 근데 그걸 나중에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개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여자 10)

성격이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이면 화를 낼 일도, 이 집은 안정을 지켜준다 해야 하나? 그런 성격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여자 1)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가족에게 집중을 못 했었는데, 남편 가족은 가족 중심적이어서 그런 걸 보고 남편 가족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여자 2)

아버지가 대외활동을 좋아하셔서 어머니랑 자주 싸웠는데, 지금 남편은 대외활동을 잘 안 하고 가정적이라서, 아버지랑 반대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여자 4)

종교 때문에 헤어지는 것을 두 번 다시 하기 싫어서 종교가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그게 걸림돌이 되기가 싫었으니까요. 그걸로 문제가 없어서 헤어지지 않을 사람을 봤던 것 같습니다.(여자 8)

나이 들어서도 친구처럼 여행 다니는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와 꼭 취미는 같아야겠다. 취미가 다양하더라도 여행이라는 취미 하나는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여자 9)

## 2) 행복한 연애 과정

여성들은 연애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고(여자 5), 편안하고 원만한 연애과정과(여자 6), 이전 연애와의 비교를 통하여 다름을 경험하고(여자 3,6), 상대를 통해 경험하는

것에 만족함(여자 10)을 통하여 행복한 연애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미있었어요. 딱 던지면 핑퐁이 맞는, 코드가 맞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여자 5)

저희는 진짜 신기한 게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연애하면서 트러블도 없었고 순탄하게 잘 만나서 결혼 결심하는데 컸던 것 같아요.(여자 6)

이전에는 좀 불같았던 것 같아요. 불 같은 게 많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애도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 생각했어요.(여자 3)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일 때, 이전에는 불같이 싸워서 안 좋게 헤어지거나 서로 상처가 됐다면 지금 남편이랑은 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싸움까지 번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되게 나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여자 6)

둘이 같이 있어서 다양한 것도 접해보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안 해 볼 것들을 오빠 만나서 해보고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요. 연애 과정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여자 10)

### 3) 외로움

또한 동성친구에게서 채울 수 없는 부분(여자 6)으로 인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로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이성친구는 다르니까, 동성친구한테는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요.(여자 6)

## ■ 요약

두 번째 구성요소는 ‘배우자 선택’이다. 연애상대가 편안할 때, 배우자의 가정이 괜찮거나, 배우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원가족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있을 때, 그리고 종교나 취미가 같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다. 연애과정이 재미있다고 느꼈거나, 편안하고 원만했던 경우, 이전 연애와는 다르거나, 상대를 통해 경험하는 것에 만족한 경우에 ‘행복한 연애과정’을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동성친구에게서 채울 수 없는 부분으로 인한 ‘외로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성요소 3. 갈등 단계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에서는 갈등 또한 포함되었다. 갈등 단계에서는 결혼으로 인하여 미혼 때와는 다르게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며, 결혼으로 인해 지출되는 것에 대해 ‘금전적 어려움’, 또한 결혼 상대 또는 시기에 대한 ‘확신의 부족’, 마지막으로 ‘가족의 반대’로 분류되었다.

### 1)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

결혼을 하게 되면 명절에 대한 부담감(여자 1)이 생기는 것에 대한 갈등과, 일과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여자 6),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여자 6,9),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여자 5)로 나타났다.

*결혼하고 나면 명절에 여행도 못 가고 묶이는구나. 이게 좀 많이 컸죠. 묶이고 책임감도 생겨야 하고. 부담도 생기고 좀 우울증도 왔던 것 같아요.(여자 1)*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면 특히 일이나 경력에서 우리 사회가 제한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여자 6)*

*그땐 좀 자유롭잖아요,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마음껏 할 수 있고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도 돈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었는데...(여자 6)*

*인생이 끝난다는 그런 생각. (중략)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 (중략) 그냥 애 낳고 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불행할 것 같다.(여*

자 9)

친구 중에 한 명이 남미에 여행을 갔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갈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저런 곳을 한 번이라도 가 볼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생각한 것이 너무 일렀나?' 하는 생각이 좀 짙게 들었어요. 입사하고 퇴사도 한번 안 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뒤숭숭한 마음이 있었어요.(여자 5)

## 2) 금전적 어려움

금전적인 준비 부족(여자 4)으로 인해 갈등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 문제가 금액이 크잖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 같은 것, 생각한 것과 다르게 집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돈 문제죠.(여자 4)

## 3) 확신의 부족

상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여자 7,8)하거나, 상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음(여자 4)으로 인한 어려움, 비교적 길지 않은 연애 기간으로 인한 고민(여자 6) 또한 갈등 단계의 의미단위로 나타났다.

예전부터 알던 단점들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중략)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여자 7)

내가 선택하는 상대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가야 하는데,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면서 준비해 가야 하니까 그런 내 마음 상태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여자 8)

남편은 의견이 잘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연애 때도 그렇고 그냥 '네가 좋으면 해.' 하는데, 저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마음 상태가 뒤숭숭했어요.(여자 4)

저희는 2018년에 결혼을 했는데, 신랑은 원래 2017년에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1년은 만나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1년은 만나보자 4개월은 껴어보자 결혼을 너무 선불리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조금 더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여자 6)

#### 4) 가족의 반대

갈등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인 가족의 반대로, 타지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걱정(여자 1), 결혼 시기를 이르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의 마음(여자 3), 배우자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친정 식구들로 인한 어려움(여자 4,6,8)과 시댁 식구의 질투(여자1), 시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여자 8)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되게 슬퍼했어요. 타지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크셨던 것 같고,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도 싫어했던 것 같고, 결혼하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여자 1)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거라 생각 안 했고, 만나는 사람 있다고도 얘기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인사 간 것도 이야기 못했었거든요. 보통 여자 집에 먼저 인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건 아닌가 하셨어요.(여자 3)

남편 직업이 공장 다니고 현장직이고, 대학교도 아니고 2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또 대학원까지 나온 상태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여자 4)

저희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여자 6)

실질적으로는 시댁의 집안보다는 신랑을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결혼을 썩 내켜 하지는 않으셨어요. 신랑 자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가족들의 마음.(여자 8)

남편은 형이 있는데, 형 부부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니까 사랑을 뺏기는 느낌이었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인사해도 무시를 하길래 잘못 느꼈나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부모님 생신 때 가서 또 인사를 했는데 저를 한번 훑고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아버님이랑 저랑 둘이 마주 앉아서 술 마시니까 술도 못 드신다는 분이 본인도 마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여자 1)

시부모님께서 종교를 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셨으니까요.(여자 8)



### ■ 요약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갈등 단계'이다. 명절에 대한 부담감, 일과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한 경우, 또래 친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금전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관계적인 부분으로 상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상대의 의견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리고 짧은 연애 기간에 대해 고민할 때 '확신의 부족'으로 갈등을 겪었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후 타지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 결혼 시기, 배우자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는 경우, 시댁 식구의 질투나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

## 구성요소 4. 결혼 결정 단계

여성의 결혼 결정 단계는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전환기의 필요', '가족의 압력'으로 분류되었다.

### 1) 연령

연령에서는 여성들이 결혼 시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 또는 기준이 있었던 경우(여자 1,2,5)와, 결혼 이후의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부담(여자 8,9)으로 인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어릴 때 25~26살 정도에는 결혼해서 자녀랑 나이 차이가 30살 이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여자 1)

30살 전에는 결혼해있지 않을까 생각한 건 있었어요.(여자 2)

30살 전에는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결혼을 늦게 하시고, 저도 둘째여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가 엄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휴, 친구 엄마들은 다 젊고 예쁘는데 엄마가 늙어서 속상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기를 낳아야지 생각했어요.(여자 5)

30살 되기 전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세를 가질 생각을 하면 그때 또 나이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요.(여자 8)

나이가 35살이 돼서. 남편도 몇 년 동안 결혼을 하자 했었고, 미루고 미루다가 때가 돼서요. 노산이 출산하는 기준으로 만 35세잖아요, 제가 35에 결혼을 해서 임신 하지 않은 상태로 신혼을 1년 이상을 즐겨야 하고, 그러면 34살이나 35살이 되니까, 35-36 사이에 신혼 1년 정도, 임신 10달. 이걸 계산했을 때 마지노선이 35살. 신혼 때는 많이 즐기고 놀고 해야 하는데, 애 생겨봐요.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거 때문에 마지노선이 35살이었고. 신혼도 최소 1년 이상?(여자 9)

## 2) 상대에 대한 신뢰

상대에 대한 신뢰에서는 갈등 단계에서 가족의 반대와 연관되어,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의 경우(여자 6,8,9) 상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상대방의 진심,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신뢰나 태도들을 보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더 열었던 것 같아요.(여자 6)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닐 거면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신랑이 짐을 싸서 나왔거든요. (중략) 가정이 제일 큰 어려움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닐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들었어요..(여자 8)

이렇게 저렇게 만나 봐도 남편만 한 남자가 없는 것 같고, 결혼하기에 남편은 정말 한결같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많이 했죠.(여자 9)

## 3) 자연스러운 발전

또한 특별한 생각 또는 계기보다 연애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진행되는 상황(여자 1)도 있었다.

무조건 결혼하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애랑 해야겠지? 하는 생각. 되게 무난하고 편안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데이트하다가 가전을 보러 가거나, 인테리어 소품을 보러 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어서 보면서 “집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여자 1)

## 4) 전환기의 필요

또한 여성은 전환기가 필요한 경우에 결혼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의미단위로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여자 1)와, 자립에 대한 욕구(여자 4,7), 속해있던 원가족의 관계에서 독립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경우(여자 5,7), 직장에서의 권태기로 삶에서 전환이 필요했던 경우(여자 5)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마음. 빨리 이루고 싶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기도 했어요.(여자 1)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집이 생기는 거니까요. 가전 사러 가는거나, 집에 필요한 물건들 사러 가는 게 좋았어요.(여자 4)

부모님이 좋긴 하지만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아하니까 이제 독립해서 나가면 또 다른 자유가 생기는구나 해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좋았고...(여자 7)

엄마랑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계속 부딪히는 일도 많고, 빨리 집 나가고 싶다. 독립해서라도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어플에서 집도 알아보고 할 정도였는데 (중략) 어차피 곧 결혼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여자 5)

부모님 사이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상황을 좀 안 보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해서요.(여자 7)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에 대한 권태기도 엄청 심했고, 계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직업이 있는데 왜 다 그만두고 살림만 살아야 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일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시기상 할 수 있는 게 그만두고 나가는 건 겁나고, 결혼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전환점인 거예요.(여자 5)

## 5) 가족의 압력

또한 가족의 압력으로 가족이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여자 5)와, 배우자가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여자 6), 부모님이 사주를 보러 갔다가 사주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여자 1)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집에서 제가 좀 빨리 가기를 바라셨어요. 한 명 갔으니까 남아있는 제가 좀 속제 같았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 빨리 가야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건데 그런 생각

으로 “빨리 시집가야지.” 하셨어요.(여자 5)

신랑은 그때 34살 정도 됐었고, 그전부터 결혼을 되게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준비도 되어 있었고 남편 부모님도 남편이 결혼하는 걸 원하고 있었어요.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확신도 있고 준비도 되어있었어요. 남자 쪽에서 리드해서 결혼한 케이스이기도 해요.(여자 6)

엄마는 사주만 맞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여자 1)

### ■ 요약

네 번째 구성요소는 ‘결혼 결정 단계’이다. 스스로 결혼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거나, 자녀 출산으로 인해 부담을 가져 ‘연령’에 의해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경우,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진행된 ‘자연스러운 발전’, 안정감이나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거나 원가족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직장의 권태기로 인한 일상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전환기의 필요’로 결혼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족들이나 배우자가 결혼을 서두르는 경우, 사주에서 시기를 이야기해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 구성요소 5. 결혼 준비 단계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에서 마지막 구성요소로는 결혼 준비 단계로 나타났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양가 사이에서 조율’,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 1) 양가 사이에서 조율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양가가 원하는 부분이 다름(여자 2)으로 인하여 그 사이에서 조율하는 중간 역할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양가 집안의 의견을 맞춰야 해서, 우리 집에서는 예단비를 생략하고 싶어 했는데, 시댁 쪽에서는 원하시니까 어려웠어요.(여자 2)

### 2)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

또한 본인들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의견으로 준비되는 경우도 있었다. 부부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 되는 경우(여자 6)와 상견례 이후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함께 준비하는 경우(여자 2)도 있었다.

*저는 스몰 웨딩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의 로망은 진짜 지인들만 모아서...(여자 6)*

*상견례 이후에 한복 맞추면서 예단비 이런 거는 같이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이불, 반상기 이런 것도 그냥 어머니들끼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여자 2)*

### 3)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결혼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경우 또한 나타났다. 부모님께서 결혼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상황임에도 부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경우(여자 1),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에서 바라는 것이 크게 없었던 것(여자 3), 결혼 결정 단계와 달리 준비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하며 독립되는 부분(여자 6)이 좋았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가 의견 조율해서 고르라고...(여자 1)*

*정할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는 건 없었어요. 남편 동생도 결혼할 때 뭐 없었대요. 거기도 스무드하게 넘어갔었고, 저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뭐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여자 3)*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독립한 적도 없어서 부모님의 영향이 강했는데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니까 준비하는 것에 대해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독립적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여자 6)*

#### ■ 요약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결혼 준비 단계’이다.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가 원하는 부분이 다를 때 ‘양가 사이에서 조율’하거나, 상견례 이후 만나서 함께 준비하거나, 부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부모가 선택의 기회를 부부에게 주거나, 자녀 결혼에서 바라는 것이 없었던 경우, 부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한 경우에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험을 하였다.

## ■ 소결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 ‘배우자 선택’ ‘갈등 단계’, ‘결혼 결정 단계’, ‘결혼 준비 단계’를 살펴보았다.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각각 가지고 있었고,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된다는 생각과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시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신념이 여전히 존재하며,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들이 많다는 부정적인 인식 또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행복한 연애평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내적·외적요인, 동일요인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의 모습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애의 과정이 재미있고, 편안하고 원만하며, 만족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였으며, 외로움으로 인해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갈등 단계’에서는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 금전적 어려움, 확신의 부족, 가족의 반대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명절에 대한 부담감이나 일과 경력 단절로 인한 걱정, 제약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으로 결혼 자체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주거지 마련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반면 상대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나 가족의 반대로 인한 관계적인 갈등도 나타났다.

‘결혼 결정 단계’에서는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전환기의 필요, 가족의 압력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기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결혼 연령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거나, 갈등 단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생긴 경우, 연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 한 경우, 현재 처한 상황에서 전환이 필요했을 때 상황 변화를 위하여, 또는 가족의 압력으로 인하여 결정하게 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양가 사이에서 조율,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나타났다. 양가의 의견을 맞추기 위한 역할과, 본인들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되는 경우,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기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유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인식이 곧 결혼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선택이나 갈등, 결혼 결정, 결혼 준비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아 아직까지는 결혼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결함이라는 인식이 결혼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남성의 결혼결정과정

현상학적 분석방법의 연구 결과로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에 대한 의미단위는 52개, 하위구성요소 21개, 구성요소는 5개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는 <표-3>과 같다.

<표-3> 신혼남성의 결혼결정과정

의미단위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2,5,7,8,9)</li> <li>- 주변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들음(3)</li> </ul>	결혼에 대한 부담감	결혼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음(1,2,10)</li> <li>- 결혼은 선택적임(5)</li> <li>- 늦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7)</li> <li>- 집안 형편으로 결혼 생각 못함(8)</li> </ul>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음(9)</li> <li>-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함(3,6)</li> </ul>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족과 같은 모습을 원함(3,6,9)</li> <li>- 원가족과 다른 모습을 원함(7)</li> <li>-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생각(10)</li> </ul>	원가족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없는 장점이 매력적(6)</li> <li>- 배우자와 잘 맞음(2,3,4)</li> <li>- 종교가 같음(5)</li> </ul>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이 없음(1,3,5,6,7)</li> <li>- 연애평정에서 즐거움(6)</li> <li>- 이전 연애와의 비교(6)</li> </ul>	행복한 연애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 가능한 시기의 연애상대(1,3,8,9)</li> <li>- 이전 연애는 결혼 생각이 없었음(2,4)</li> </ul>	결혼 적령기의 연애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에 대한 확신 부족(4,8)</li> <li>- 결혼에 대한 확신 없음(1,2,8,10)</li> <li>- 결혼을 안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3)</li> </ul>	확신의 부족	갈등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 마련과 금전적인 부담(2,4,5)</li> <li>- 지원이 없음(6,8)</li> </ul>	금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가에서의 반대(6,8,9)</li> <li>- 본가에서의 갈등(8,2)</li> <li>-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생각(8)</li> </ul>	가족으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음(5,6)</li> <li>- 혼기의 부담(6,9)</li> </ul>	연령	결혼 결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신이 생김(3,5,6,7,8,10)</li> </ul>	상대에 대한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럽게 결혼 결정(2,3,4)</li> <li>- 연애 때부터 가족들과 자주 왕래함(1,5)</li> </ul>	자연스러운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들이 결혼을 서두름(1,3,5,7,9)</li> <li>- 배우자가 결혼을 서두름(5,7)</li> </ul>	가족의 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과 따로 지냄(10)</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었음(3,6)</li> <li>- 결혼자금을 위해 노력함(7,9)</li> <li>- 부모님께 지원받음(1,10)</li> <li>- 대출을 통해 어려움 해결(2)</li> </ul>	금전적인 준비가 됨	결혼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1,9,10)</li> <li>- 결혼식에 대한 갈등(7,10)</li> <li>- 결정의 어려움(2,8,10)</li> <li>- 금전적 어려움(7,10)</li> </ul>	준비 과정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 해결(1)</li> <li>- 중간역할을 감당(2)</li> <li>- 대화와 공유를 통한 어려움 해결(7,8)</li> </ul>	갈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의견을 많이 따라감(1,2,6)</li> <li>- 배우자가 결혼 준비를 많이 함(5,7)</li> </ul>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함(4)</li> <li>- 가족들이 부부 의견을 존중(7,10)</li> <li>- 주변에 많이 물어봄(6)</li> </ul>	부부 주도적으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채워가는 과정이 좋음(4,6,9)</li> </ul>	준비 과정의 즐거움	



도출된 하위구성요소 21개, 구성요소 5개는 아래와 같다.

## 구성요소 1. 결혼에 대한 생각

남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원가족의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 1) 결혼에 대한 부담감

남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결혼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경우로, 가장이라는 것 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 두려움을 느낀 참여자(남자 2,5,7,8,9)들이 많았으며, 주변의 기혼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결혼에 대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경우(남자 3) 결혼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버지가 집안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중략)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크구나. 가정 분위기에 영향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남자 2)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도 견사하기 어려운데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가도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남자 5)

처음에 결혼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행위니까 부담감이 있었는데... 마음은 불안감이 있었죠. 가정을 이루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불안했구요.(남자 7)

제가 자취는 해봤지만 책임을 지면서 나오는 건 없었기 때문에 부담도 되었고요. 잘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남자 8)

마음은 그래도 한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남자 9)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이 많아서 하도 여러 가지 실제나 장단점은 많이 듣다 보

니까 환상은 깨진지 오래되었고, 주위 친구들한테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남자 3)

## 2)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남성은 결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경우(남자 1,2,10)도 있었으며, 결혼은 선택적인 것(남자 5)이라거나, 늦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남자 7)가 있었다. 또한 예외적으로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 경우(남자 8)도 있었다.

졸업하고 나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빨리 취업을 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진짜 그쪽에만 집중을 했고...(남자 1)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만날 때도 결혼 생각은 없다 하고 만났는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혼자 살 때의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죠...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긴 들었죠.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면 알 거라고 하고, 요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지...(남자 2)

결혼은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가정을 꾸리는 것이 힘들다는 걸 부모님을 보면서 보았기 때문에 원래 독신주의자였어요.(남자 10)

중립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남자 5)

혼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고요. 저는 늦게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구요.(남자 7)

저희 집이 유복한 집안이 아니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남자 8)

## 3)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반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며,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결혼을 빨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남자 9)와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남자 3,6)가 있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컸고요.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했지만...(남자 9)

2세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서, 결혼보다는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남자 3)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35살에 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기회나 여건이 되지 않아 결혼을 못 했는데 당연히 자라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혼자 사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남자 6)

#### 4) 원가족의 영향

또한 결혼에 대해서 원가족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원가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으로 원가족과 같은 모습을 원하거나(남자 3,6,9), 반대로 원가족을 통하여 원가족과는 다른, 더 나은 모습을 원하는 경우(남자 7), 또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남자 10)도 있었다.

저는 부모님께서 지금도 워낙 사이가 좋으시고 현재까지 취미를 같이 공유하시고 노후도 같이 즐기시는 것 보면서, 배우자를 택할 때도 부모님 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배우자를 고를 때 영향은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주신 것 같습니다.(남자 3)

당연히 부모님을 보면 가족을 이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같이 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해야 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습니다.(남자 6)

어릴 적 바라본 가족의 모습은 서로 서로 싸우고 해도 정겹잖아요. 부모님께서 꾸려 오신 그 가정이 참 좋았어요... 가족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고요.(남자 9)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제가 자라온 환경보다는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은 했었죠.(남자 7)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자녀를 케어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걸 느꼈고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양가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해야 할 부분이 보이면서 그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요. 그런 게 느껴질 때

는 안 하는게 낫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챙겨야 할 것과 봐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이에요.(남자 10)

### ■ 요약

첫 번째 구성요소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다. 남성은 결혼에 대해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 주변에서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인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선택으로 여기거나, 늦게 해도 상관없는 경우와 집안 형편으로 결혼 생각을 하지 못해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반면 결혼을 빨리하고 싶거나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원가족과 같은 모습 또는 다른 모습을 원하거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생각하는 '원가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 구성요소 2. 배우자 선택

두 번째 구성요소로 배우자 선택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행복한 연애 과정', '결혼 적령기의 연애 상대'로 분류되었다.

### 1)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는 나에게 없는 장점이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남자 6), 배우자와 잘 맞음(남자 2,3,4), 종교가 같음(남자 5)으로 인하여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었다.

성격 면에서도 온순하고 차분하고 되게 잘 맞았고... 나의 없는 장점이 상대방에 있는 걸 보고 매력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남자 6)

아내가 속이 깊어서 하여튼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저도 배려를 했고, 아내도 저한테 많이 배려를 해줬고요... 한번 헤어졌었는데, 다시 만났어요. 예전에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혼자라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번 헤어져보니까 혼자 못 살 것 같고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남자 2)

교제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전에는 성격이나 관심사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오래 연애 기간이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관점도 안 맞는 부분이 보이고 느껴져서 오래 이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내와는 서로 성격이나 관심사나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남자 3)

지금 와이프랑은 어느 정도 맞으니까 결혼하게 된 것 같은... 마음도 잘 맞고 서로 장난기도 많고.(남자 4)

무조건 종교가 1순위이니까 그것만 맞으면 된다고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남자 5)

## 2) 행복한 연애 과정

연애를 하면서 갈등이 없고(남자 1,3,5,6,7), 연애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 경우(남자 6), 이전 연애와 비교했을 때 감정이 다른 경우(남자 6)에 배우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격 자체가 그냥 잘 맞춰준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게 싸우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남자 1)

의견 충돌이 많이 없고... 많이 싸우고 한다는데 서로 비슷한 생각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남자 3)

1년 2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싸운 적이 특별히 없고 서로 화를 잘 내지 않고 서로에게 잘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남자 5)

연애하면서 싸우고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까 헤어지거나 싸운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남자 6)

싸운 적도 별로 없고 무난하게 잘 만났어요. 배우자분이 저를 잘 이해해주는 편이어서 크게 다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남자 7)

저희는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싸우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남자 6)

이전에도 다른 친구들 만나보면서 그런 느낌 감정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남자 6)

## 3) 결혼적령기의 연애 상대

남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결혼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 상황에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경우로 결혼이 가능한 시기의 연애 상대(남자 1,3,8,9), 이전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으나 연령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서 연애하는 상대(남자 2,8)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면서 만나게 되었어요.(남자 1)

사회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결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이성 교제를 결혼을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한 편이어서, 신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거지만 와이프는 생각이 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는 부담을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남자 3)

제가 취업 시작한 것과 연애한 시점이 비슷하면서 저희 회사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해서 결혼에 대해 일찍 생각을 가지고, 결혼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었고요. 적합한 상황도 관건이 되었구요.(남자 8)

일을 하고 나서는 내 집을 사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그때부터 돈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남자 9)

이전에는 진지하게 만났던 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남자 2)

그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나다 보니 '애만큼 저를 좋아해 주고 해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남자 4)

#### ■ 요약

두 번째 구성요소는 '배우자 선택'이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나에게 없는 장점을 매력적으로 여기거나, 잘 맞거나, 종교가 같을 때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갈등이 없거나, 연애 과정에서 즐거웠던 경험, 이전 연애와 비교했을 때 '행복한 연애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이 가능한 시기의 연애 상대이거나, 이전 연애는 결혼 생각이 없었을 때 '결혼 적령기의 연애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였다.

## 구성요소 3. 갈등 단계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에서도 갈등은 포함되었다. 갈등 단계에서는 ‘확신의 부족’, ‘금전적 어려움’, ‘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분류되었다.

### 1) 확신의 부족

연애과정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모습이 걱정되거나 잦은 다툼, 이질성으로 인하여 연애 상대가 배우자로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남자 4,8)가 있었으며, 또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확신이 없는 경우(남자 1,2,8,10), 업무와 상황 등으로 인하여 결혼에 대해서 망설여질 정도로 힘든 상황(남자 3)도 있었다.

솔직히 처음 말하면 아내가 술 마시면 걱정되게 행동을 해서... 결혼해서도 술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남자 4)

일단 동갑이다 보니 자주 싸우는 것도 있고... 제가 교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저희 집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도 많고...(남자 8)

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결혼을 준비하고 평생 함께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이 든 게, “나는 왜 결혼을 결심했을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가, 나중에 후회하진 않을까...(남자 1)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혼자 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남자 2)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100%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싸우게 되었고 제가 중심을 잡고 많이 잡아줬어야 하는데 제 행동이 긴가민가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해서 힘들었어요.(남자 8)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은 애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덩크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자녀 없이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둘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자체가 대단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자녀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독신주의자였는데 그런 덩크족처럼 되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남자 10)

당시 근무 환경 때문에 결혼 시점에 대해 고민했었는데... 근무했던 회사가 워낙 야근, 주말 출근, 업무량이 많다 보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태라서 결혼 자체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죠. 스스로도 못 챙기는 상황에서 가정이나 뭘 챙길 상황이 안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깐 결혼하면 가족들에게 신경을 쓸 자신이 없어서 결혼을 결심을 못한 것 같습니다.(남자 3)

## 2) 금전적 어려움

또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결혼결정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주거지 마련과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참여자(남자 2,4,5)가 있었고,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참여자(남자 6,8)도 있었다.

돈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돈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 들 정도로, 저희는 더 좋은 집을 살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눈을 더 낮춰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했을 때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적더라고요. 적금을 꾸준히 한 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좀 하긴 했는데, 많이 하진 않아서 준비가 덜됐다고 생각하긴 했었죠.(남자 2)

부담은 아무래도 집이었죠. 집은 부담되긴 했는데 대출받으면서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몰랐는데...(남자 4)

결혼 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방해가 되었습니다.(남자 5)

집을 사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배우자가 사회생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집에서 결혼자금에 대해 지원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한정된 금액 속에서 해결해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동료들, 결혼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양가 가족들이 넉넉한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두 집안의 결혼 시 자금 흐름이 증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결혼 당시 현금을 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려움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남자 6)



금전적인 문제도 있겠죠... 보통은 가정에서 도움을 주시거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했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요.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러운 것이 있었어요.(남자 8)

### 3) 가족으로 인한 갈등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처가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남자 6,8,9) 어려움이 있었으며, 처가뿐 아니라 본가에서도 반대하는 경우 갈등이 더욱 심하였다.(남자 8)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경우(남자 2)도 있었다. 또한 가정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경우(남자 8)도 있었다.

처가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장모님께서 한 달 정도 반대를 하셨고요. 그때가 살짝 힘들었고요... 한결같이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 같아요. 장모님과 독대도 했습니다.(남자 6)

장모님께서 처음에 반대를 조금 하셨다가... 장모님께서는 일단은 돈 많은 사람에게 시집보내려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했고요.(남자 9)

집안의 종교의 불일치가 조금 어려웠어요. 양가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셔서 시간도 걸리고 힘들었어요. 배우자가 주도적인 성향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주도적인 성향이 있어서 고부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중간 역할을 잘못하고 잘 풀어나가지 못해서 어머니에게도 배우자에게 원망을 듣고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요.(남자 8)

부모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셔도 쉽게 잘 이야기를 안 하시고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표현은 안하셨어요.(남자 2)

연애 초기에 저희 집에 경제적으로 조금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 경제적인 책임을 많이 지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남자 8)

## ■ 요약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갈등단계’이다. 배우자에 대한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결혼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주거지 마련과 금전적인 부담과 지원이 없음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처가의 반대, 본가에서의 갈등,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생각하여 ‘가족으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 구성요소 4. 결혼 결정 단계

남성의 결혼 결정 단계에서는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가족의 압력’, ‘외로움’으로 분류되었다.

### 1) 연령

결혼 결정 단계의 첫 번째 하위 구성요소는 연령으로, 결혼 시기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나 생각이 있었던 경우(남자 5,6)가 있었다. 또한 혼기에 대한 부담(남자 6,9)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남자 5)*

*32살쯤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남자 6)*

*제 개인적으로 혼기에 대한 부담은 느꼈던 것 같아요.(남자 6)*

*나이를 먹었으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도 원하셨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좋아했으니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남자 9)*

### 2) 상대에 대한 신뢰

연애 과정을 통하여 상대에 대해 신뢰와 확신이 생겨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경우(남자 3,5,6,7,8,10) 또한 많았다.

*저랑 좀 비슷하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어느 정도의 마음은*

들었으니까...(남자 3)

생각을 해 본 결과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남자 5)

연애하던 중에 3개월 정도 지날 즈음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풀 수 있고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남자 6)

오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와 같이 살고 미래를 꿈꾸면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고 느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남자 7)

누가 먼저 결혼하자는 것보다 결혼을 평소에 3년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서로 생겼던 것 같아요.(남자 8)

이 사람과 잘 맞는다고 느낀 것이요. 배우자와 서로의 믿음으로 들어서 해결해나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느낌이 있었어요. 앞으로 같이 살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남자 10)

### 3) 자연스러운 발전

또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발전된 경우도 많다.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 결정을 하게 된 경우(남자 2,3,4)도 있었으며, 연애 과정 때부터 가족들과의 왕래를 통하여 결혼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된 경우(남자 5,7)도 있다.

저는 30살에 했으니까 빨리 한 편이어서, 저한테 결혼하라고 압박한 건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오래 사귀다 보니까 가족들과 아내도 많이 봤고...(남자 2)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어느 순간 뭐 결혼 날짜도 잡게 되고 이어지고 그런 게 나중에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남자 3)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혼 이야기 나오고 양가 부모님 인사드리고

하게 되면서요.(남자 4)

양가 집안에도 자주 왕래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처갓집에 결혼 전에 자주 갔고, 놀러 가서 자고 올 때도 있고 장인어른이랑도 술도 한잔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와이프가 저희 집에 왔을 때도 부모님이 또 딸같이 대해주시니까 “너넨 언제 결혼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다가...(남자 1)

장인어른이 은퇴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인정을 받고 해서 너무 좋아요. 장인,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을 정도니까요.(남자 5)

#### 4) 가족의 압력

가족들이 결혼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경우(남자 1,3,5,7,9)가 많았으며, 배우자가 결혼을 서두른 경우(남자 5,7)도 있었다.

부모님은 빨리 하기를 원하셨고... 결혼을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영향은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으니까...(남자 1)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잔소리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빨리 했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요.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제 의견을 결정하는 것을 지지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편이어서 반대 의견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남자 3)

그냥 빨리 결혼 진행을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 간섭은 전혀 없으시고 제가 첫째여서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이 혼자 20살부터 살아오다가 결혼을 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남자 5)

양가 부모님이 원래 같은 교회에 오래 다녀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셨는데, 언제 결혼할 건지 양가 부모님께서 먼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압력을 행사하셨는데 제가 조금 미루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현재 정년퇴직 준비 중이고 자녀가 빨리 출가를 해야 본인이 조금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 같았어요(남자 7)

제가 장남이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죠.(남자 9)

배우자가 무조건 30대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한 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했고 그 계기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남자5)

배우자는 1년 정도 만났을 때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장모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와서 부담스러웠어요.(남자 7)

## 5) 외로움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남자 10)도 있었다.

가족끼리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이에요.(남자 10)

### ■ 요약

네 번째 구성요소로 ‘결혼 결정 단계’에서는 결혼 시기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경우, 혼기에 대한 부담으로 ‘연령’으로 인해 결정하였거나, 확신이 생겨서 ‘상대에 대한 신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연애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거나,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결혼을 결정하기도 하였고, 가족이나 배우자가 결혼을 서둘러서 ‘가족의 압력’으로, 또는 가족과 따로 지내며 ‘외로움’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성요소 5. 결혼 준비 단계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준비가 됨’, ‘준비 과정의 어려움’, ‘갈등 해소’,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 ‘부부 주도적으로 준비’, ‘준비과정의 즐거움’으로 분류하였다.

### 1) 금전적인 준비가 됨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오히려 금전적 준비가 된 경우가 많았다. 경제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경우(남자 3,6)와, 결혼 자금을 위하여 계획적인 경

제활동을 하거나 결혼 시기를 미뤄가면서 모으기 위해 노력한 경우(남자 7,9)도 있었으며,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한 경우(남자 1,10), 대출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한 경우(남자 2)도 있었다.

직장 생활 한지는 8-9년 차 됐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일찍 결혼한 친구들보다는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남자 3)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남자 6)

개인적으로 주거 공간 등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결혼을 미뤘죠. 전세자금을 다 모으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남자 7)

일단 경제적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서 경제적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죠. 군대 전역하고 몇 달 쉬고 계속 일만 했죠. 저는 그때부터 결혼자금을 위해 계속 일을 했죠.(남자 9)

각자 부모님들께 경제적인 부분을 오픈하고, 어느 정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얘기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계획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덜 힘들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남자 1)

일단 집이 있으니까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솔직히 집이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남자 10)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남자 2)

## 2) 준비 과정의 어려움

결혼을 결정을 한 이후에도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 특히 장거리의 경우(남자 1)에는 결혼 준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함에 있어서 시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남자 9,10)도 있었다. 또한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혼식의 형태, 식장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가족과 갈등이 있는 경우(남자 7,10)도 있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성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남자 2,8,10)도 많았으며, 결혼 준비에서 추가되는 부분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남자 7,10)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직장을 같은 곳에 같이 구해서 사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고, 부모님도 같은 지역에 계시고 하면 가장 좋은데, 직장이라는 게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 지금도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어요. 그거 빼고는 크게 방해가 되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남자 1)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중이라 결혼 준비를 알아보다 보니 힘들었고 결혼 과정 자체가 예민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도 알아볼 때도 힘들었고 집을 구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는데 일 끝나고 간다는 게 참 힘들었는데요.(남자 9)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결혼 준비가 계속 미뤄지고 그랬던 것들인 것 같아요.(남자 10)

교회에서 식을 올릴 수 있는데, 배우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 싫다고 했어요. 예식장보다 교회가 안 예쁜 이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예식장에 비하면 교회에서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걸 생각이 들었어요.(남자 7)

원래 결혼식을 하우스 웨딩처럼 작게 하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께서 손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부모님 행사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판이 커지고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죠. 저희는 식을 안 하고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남자 10)

선택지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선택지가 너무 많았으니까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남자 2)

결혼과정에서 제 성격이 딱 결단 짓는 성격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었죠. 배우자는 성향이 딱 부러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중간에서 해결을 못 짓고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어가다 보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 결단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남자 8)

나름대로 저희도 최소화해서 한건 데.. 지금 예복 같은 건 안 하겠죠. 한복 맞추는 것, 예복 맞추는 것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싶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돈을 주고 업체를 맡기거나 안 힘들게 준비하는 과정을 찾고 싶다는 점이죠. 그만큼 결혼준비 과정이 힘들었어요.(남자 10)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꾸밈비나 신랑 정장 같은 것은 안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그런 걸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금전적으로 약간 어려웠어요.(남자 7)

현실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혼준비과정이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결혼식을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만 부담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둘이서 반씩 부담하기로 했고 모든 것을 다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일정 맞춰서 움직이고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았죠. 일과 끝나면 결혼 준비 이게 반복이 되어서 6개월 정도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남자 10)

### 3) 갈등 해소

갈등이 있었으나 오히려 결혼 준비 단계에서 갈등 해소를 경험하는 참여자들도 많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을 경험해가는 참여자(남자 1)도 있었으며,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갈등을 잘 넘어간 경우(남자 2), 대화와 공유를 통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해간 경우(남자 7,8)도 있었다.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주변 시선 신경 안 쓰고 살면 되니까.(남자 1)

전 모르는 척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들은 전하고, 전하지 않은 것도 많았었고... 아내 쪽에서도 이야기 듣는 걸 전한 것도 있고 안 전한 것도 있고, 모르는 척을 많이 했었어요.(남자 2)

배우자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돈에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 오해가 안 생기도록 아내를 통해서 어머님께 많이 말씀드리라 하고, 저도 어머니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남자 7)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결혼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인정은 못하겠지만 내가 계속 함께 할 사람이라면 서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피해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간 배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남자 8)

### 4)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

남자들의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큰 하위 구성요소가 나타



났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상대의 의견이 주로 결정으로 이어지고, 남자의 의견대로 하려면 많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는 경우(남자 1,2,6)가 많았으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가 결혼 준비를 많이 한 경우(남자 5,7)도 있었다.

모든 결정에 있어서 남자는 선택권이 많이 없구나. 결혼식부터 식장 선택 등 선택권이 많이 없는데, 선택권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이 많이 시끄러워지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죠. (중략) 뭐 해야 한다 하면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그대로 하거나 계산만 하고 그렇게 준비를 와이프가 다했어요.(남자 1)

아내 의견에 많이 따라갔었어요... 안 싸우려고 하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 하긴 해야 하는데,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들어주고 그 결정이 저한테도 괜찮으면 좋고, 안 괜찮으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 결정을 더 잘했었어요.(남자 2)

남자가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남자 6)

결혼 결정과정과 준비과정이 배우자가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근무가 일정하지 않아서 준비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남자 5)

배우자가 청첩장, 결혼 준비를 예쁘게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많이 따라주려고 노력했죠. 제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고 나면 집에서 자고 쉬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혼수를 준비하고 다녀야 하는 과정인데 혼자 안 보내고 싶어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많이 못 갔고 주말에만 조금 다니고 했습니다.(남자 7)

## 5) 부부 주도적으로 준비

결혼 준비 단계에서 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한 경우에는 부부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남자 4)도 있었으며, 가족들 특히 양가 부모님들께서 부부의 의견을 존중해주신 경우(남자 7,10)와, 주변에 많이 물어보며 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남자 6)도 있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먼저 했어요. 먼저 해결하고 집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딱히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남자 4)

허례허식을 많이 안 하시려고 양쪽 부모님께서 노력했어요. 예단 등 많이 생략하

려고... 양쪽 부모님들도 주변에 보이는 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쓰시고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결혼과정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남자 7)

가족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준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어려운 부분들은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고 통보하고 조금 안 맞는 것만 조율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부모님께서도 저희를 너무 믿어주셨기 때문에 평온했던 것 같아요.(남자 10)

예단, 혼수 이런 것도 양가 부모님이 먼저 다 챙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서로 자기네 집 부모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예단은 이런 식으로 하자, 혼수는 이런 식으로 하되 이런 것만 챙기자. 이런 것을 저희가 먼저 상의하고 각 집에 전달하는 식으로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다툼이 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위 경험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셔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남자 6)

## 6) 준비 과정의 즐거움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부가 함께 준비해 가고, 결혼을 준비함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기대감을 느낀 경우(남자 4,6,9)도 있었다.

다들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딱히 싸우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남자 4)

다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 나의 가족을 만들어 꾸려간다는 것이 좋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남자 6)

이 공간이 내 것이라는 것이 참 좋았어요. 배우자와 앞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겨서 참 좋았어요. 혼자 숙소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해 더 안정적이고 기대가 되었어요.(남자 9)

### ■ 요약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결혼 준비 단계’이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거나, 결혼 자금을 위해 노력했거나,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금전적인 준비가 된’ 경우, 직장으로 인한 어려움과 결혼식에 대한 갈등, 결정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대화와 공유를 통해, 대출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갈등 해소’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거나, 배우자가 결혼 준비를 많이 한 경험을 통하여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거나, 가족들이 부부의 의견을 존중해준 경우, 주변에 많이 물어보며 ‘부부 주도적으로 준비’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함께 채워가는 과정이 좋은 ‘준비 과정의 즐거움’도 경험하였다.

### ■ 소결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 ‘배우자 선택’ ‘갈등 단계’, ‘결혼 결정 단계’, ‘결혼 준비 단계’를 살펴보았다.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원가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책임감과 두려움, 현실적인 이야기로 인해 결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생각이 없거나 선택적이라 생각하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 빨리하고 싶거나 당연한 경우, 원가족의 모습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배우자 선택’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행복한 연애평가, 결혼 적령기의 연애상대를 통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에게 없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배우자와 잘 맞고, 종교가 같은 경우와 갈등이 없고 연애가 즐거우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경우와, 결혼 가능한 시기의 연애 상대인 경우 배우자로 선택하였다.

‘갈등 단계’에서는 확신의 부족, 금전적 어려움, 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결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주거지 마련으로 금전적 부담과 지원이 없는 경우, 가족의 반대나 갈등으로 결혼 결정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결혼 결정 단계’에서는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가족의 압력,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결혼 시기에 대한 기준이나 혼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경우에 연령으로 인해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연애평가를 통해 상대에 대해 신뢰와 확신이 생겨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경우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하게 된 경우, 가족들이 결혼을 빨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금전적인 준비가 됨, 준비 과정의 어려움, 갈등 해소,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 부부 주도적으로 준비, 준비과정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금전적인 준비가 되었거나 대출을 통해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준비 과정에서 직장생활로 인한 어려움, 결혼식에 대한 갈등, 결정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대화와 공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한 결혼 준비 단계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의견에 많이 따라가며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고 느꼈으며,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주변에 물어보며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함께 채워가는 과정을 통하여 준비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아직까지 전통적인 성역할로 인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에게서 결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적령기의 연애상대와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한 준비를 통하여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결혼결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5개의 구성요소로 ‘결혼에 대한 생각’, ‘배우자 선택’, ‘갈등 단계’, ‘결혼 결정 단계’, ‘결혼 준비 단계’이다. 성별 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은 대체적으로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결혼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들이나 명절이나 일과 경력단절로 인하여 미혼 때와는 달리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반면 남성은 결혼에 대해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었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은 배우자의 가정을 많이 고려하였으며 가족의 반대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적령기의 연애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여성은 양가 사이에서 조율이나 가족들의 의견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나, 남성은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 차이를 통하여 아직까지 결혼 문화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과, 남성생계부양자규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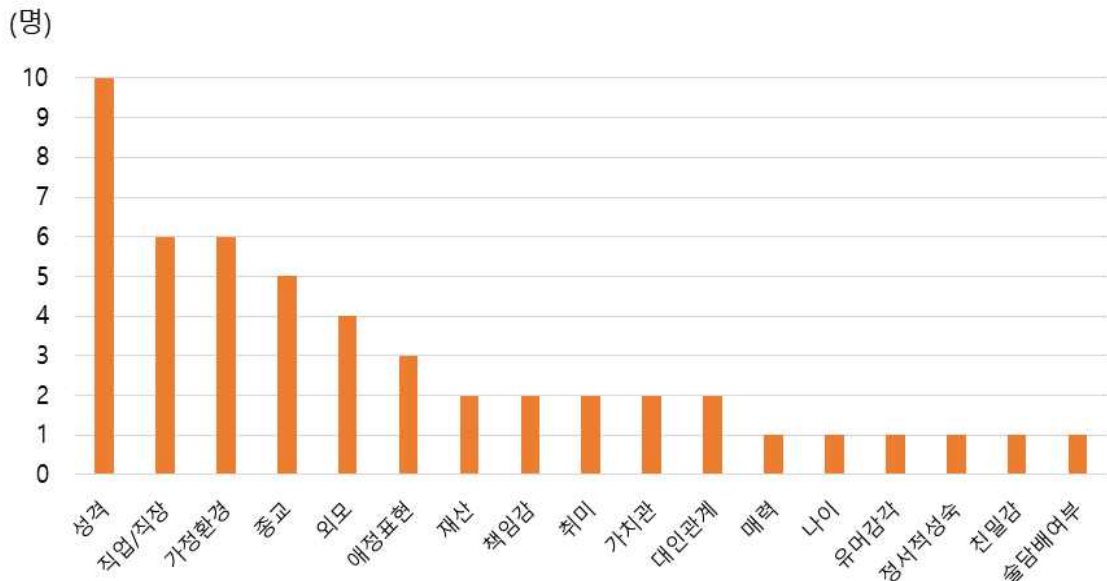
## 2.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

### 1) 여성의 결혼결정요인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은 배우자 선택 요인과 순위 및 결혼결정요인의 순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에 대해 배우자 선택 요인을 참여자 당 5가지씩 순위를 알아보았다. 배우자 선택 요인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신혼여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



그 결과 요인으로 언급된 순위대로 살펴보면 성격(10명), 직업/직장(6명), 가정환경(6명), 종교(5명), 외모(4명), 애정표현(3명), 재산(2명), 책임감(2명), 취미(2명), 가치관(2명), 대인관계(2명), 매력(1명), 나이(1명), 유머감각(1명), 정서적 성숙(1명), 친밀감(1명), 술·담배여부(1명) 이다.

선행 연구인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정민자,1987) 결과와 비교하여 봤을 때, 약 3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선택 요인에서 ‘성격’은 계속하여 높은 순위로 유지되었다. 반면 ‘직업/직장’의 경우 과거에는 순위가 낮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2번째로 높은 요인으로 언급되었으며, ‘건강’의 경우 과거에는 중요한 1순위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요인으로 의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건강이 크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는 ‘종교의 차이’는 거의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순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도 결정 요인에 크게 작용함으로 무교보다는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은 종교의 일치를 결혼 결정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이 기독교인 경우 같은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무교이거나 불교인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연애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두 번째로, 결혼 결정 단계를 통하여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박다운 외,2011)에서 사용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혼여성의 결혼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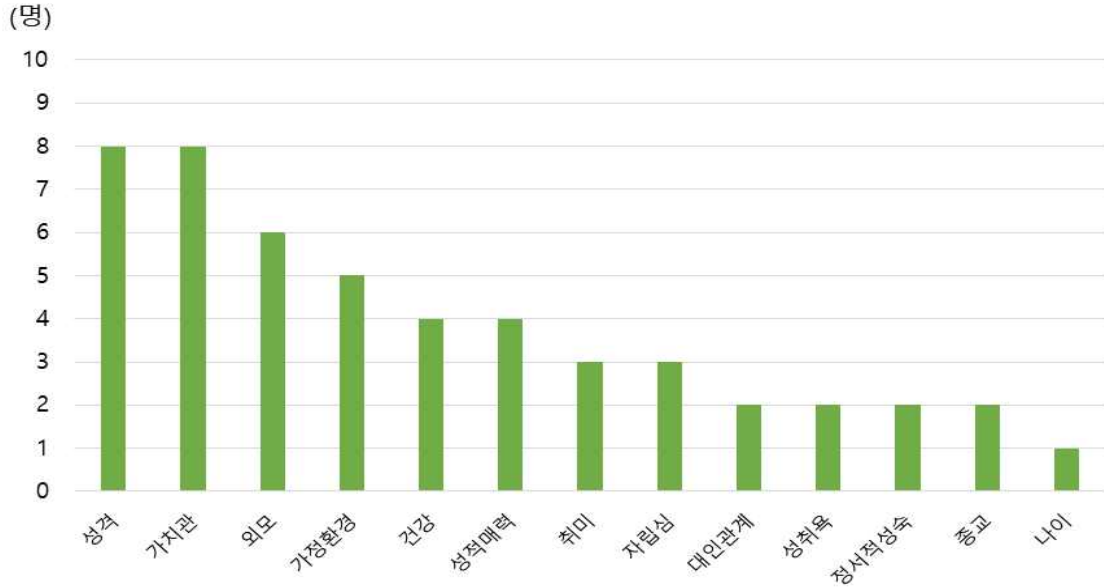
여성의 결혼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참여자 7명(여자 2,3,4,6,7,8,9)에게서 나타났고,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참여자 6명(여자 1,2,4,5,8,10)에게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이 참여자 2명(여자 1,10),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가 2명(여자 3,9), 주위의 조혼 권유가 2명(여자 6,7), 부모의 결혼 재촉이 1명(여자 5)으로 나타났다.

## 2) 남성의 결혼결정요인

남성의 결혼결정요인 또한 배우자 선택 요인과 순위 및 결혼결정요인의 순위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에 대해 배우자 선택 요인을 참여자 당 5가지씩 순위를 알아보았다. 배우자 선택 요인에 대하여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4]과 같다.

[그림 4] 신혼남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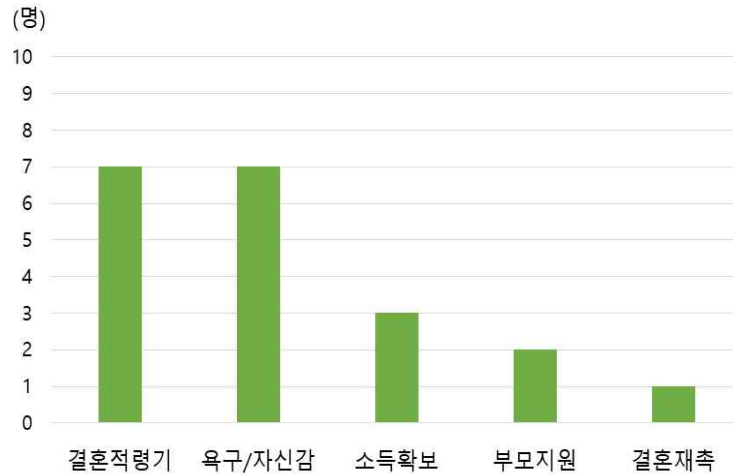
그 결과 요인으로 언급된 순위대로 살펴보면 성격(8명), 가치관(8명), 외모(6명), 가정환경(5명), 건강(4명), 성적매력(4명), 취미(3명), 자립심(3명), 대인관계(2명), 정취욕(2명), 정서적 성숙(2명), 종교(2명), 나이(1명)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정민자,1987) 결과와 비교하여 봤을 때, 과거와 동일하게 ‘성격’은 높은 순위로 유지되었으며, 여자와는 비교적으로 남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치관’을 높은 순위로 언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거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외모’가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취미’의 경우에도 여러 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으로 여가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20-30대 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본인의 여가시간을 함께 즐기거나 존중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로는 여성의 경우 ‘건강’을 크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정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은 결혼을 결정할 때, 상대를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배우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남성들은 결혼결정요인으로 ‘자립심’을 언급함으로써,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역할의 부담감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심이 높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결혼 결정 단계를 통하여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서 연구문제 1에서 결혼 결정 단계에서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주변의 압력, 외로움으로 결혼을 결정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으며, 여성과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신혼남성의 결혼결정요인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은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참여자 7명(남자 1,2,4,5,6,7,8)에게서 나타났고,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참여자 7명(남자 2,3,4,5,8,9,10)에게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가 3명(남자 6,7,9),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이 참여자 2명(남자 1,10), 부모의 결혼 재촉이 1명(남자 3)으로 나타났다.

■ **소결**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은 배우자 선택, 결혼결정요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배우자 선택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순위는 성격, 직업/직장, 가정환경, 종교, 외모/키, 애정표현, 재산, 책임감, 취미, 가치관, 대인관계, 매력, 나이, 유머감각, 정서적성숙, 친밀감, 술·담배여부이다. 남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성격, 가치관, 외모, 가정환경, 건강, 성적 매력, 취미, 자립심, 대인관계, 성취욕, 정서적 성숙, 종교, 나이이다.

두 번째로 결혼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 주위의 조혼 권유, 부모의 결혼 재촉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결혼 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 부모의 결혼 재촉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점으로 여자는 주위의 조혼 권유가, 남자의 경우 부모의 결혼 재촉이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결혼적령기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결혼 후 역할 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결혼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3.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결혼과 관련된 절차들의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한 질문지를 통하여 진행여부와 주 결정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아래의 <표-4> 으로 나타났다.

<표-4>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

구분	항목 \ 참여자	수행	주 결정자(수)
준비	양가인사	10	부부(5), 아내(3), 남편(1), 양가(1)
	상견례	10	부부(4), 양가(2), 시가(2), 아내(2)
	택일	10	부부(4), 처가(3), 아내(2), 시가(1)
	리허설촬영	10	아내(6), 부부(4)
결혼식	결혼식	10	아내(4), 부부(4), 남편(1), 시가(1)
	폐백	9	시가(3), 부부(2), 남편(1), 아내(1), 양가(1), 처가(1)
	예복/한복	9	양가(4), 부부(2), 시가(1), 처가(1) 아내(1)
	답례품	5	부부(3), 양가(1), 아내(1)
	신혼여행	10	부부(6), 아내(4)
양가 예	예물	10	부부(5), 아내(3), 양가(2)
	현금예단	7	처가(3), 양가(2), 시가(1), 부부(1)
	현물예단	3	처가(2), 양가(1)
	봉채비	4	부부(2), 처가(1), 양가(1)
	꾸밈비	6	시가(4), 양가(1), 아내(1)
	함	3	시가(3)
	이바지	7	처가(5), 아내(1) 부부(1)
	답바지	4	시가(3), 아내(1)
주거	신혼집	10	부부(4), 사택(3), 시가(2), 남편(1)
	혼수	10	부부(4), 아내(4), 처가(1), 시가(1)

양가 인사, 상견례, 택일, 리허설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수행한 절차이다. 폐백 및 예복/한복의 경우 한 부부를 제외한 모든 부부가 수행하였다. 현금예단, 현물예단, 봉채비, 꾸밈비, 함, 이바지, 답바지, 답례품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가 인사의 경우, 주로 부부의 결정으로 수행된 경우가 많으며(참여자 2,3,7,9,10)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4,5,8), 남편이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 양가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6)으로 나타났다.

상견례의 경우, 부부의 결정으로 수행된 경우가 4건(참여자 2,3,9,10), 양가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1,7), 남편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5,6),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4,8)로 나타났다. 상견례는 양가 인사에 비해 부모님이 개입하는 수가 증가하였다.

택일은 부부의 결정으로 수행된 경우가 4건(참여자 3,6,7,10), 아내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1,8,9),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2,4), 남편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5)으로 나타났다. 앞선 절차에 비해 아내와 아내부모님의 의견으로 결정 경우가 많다.

리허설 촬영<sup>4)</sup>은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6건(참여자 1,2,4,5,7,8),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4건(참여자 3,6,9,10)으로 참여자 모두 양쪽 부모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결정하였다.

결혼식은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4건(참여자 1,2,4,7),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참여자 3,6,7,10), 남편이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9), 남편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5)로 나타났다.

폐백은 1커플을 제외한 9커플이 수행하였으며, 남편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6,7,8),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3,10), 남편이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9),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4), 양가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2), 아내 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이다.

신혼여행의 경우,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6건(참여자 3,6,7,8,9,10),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4건(참여자 1,2,4,5)이다.

예물은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5건(참여자 3,6,8,9,10),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1,4,5), 양가부모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2,7)이다.

현금예단은 7커플이 진행하였으며 신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1,6,9), 양가부모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2,7), 남편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8),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0)이다.

현물예단은 3커플만 진행하였으며 신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1,6), 양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2)이다.

예복/한복은 1커플을 제외하고 모두 수행하였으며 양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2,5,9,10),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1,8), 남편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3), 아내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6),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4)이다.

봉채비는 4커플만 수행하였고, 부부가 결정한 경우가 2건(참여자 8,10), 신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 양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8)이다.

4) 결혼 업체들에서 리허설촬영은 크게 스튜디오, 야외, 데이트스냅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다. 30~60분 정도로 진행되는 한국 결혼식 특성상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 한 모습을 남기기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표현의 높은 욕구가 있다는 측면을 리허설촬영이 등장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꾸밈비는 6커플이 수행하였고, 남편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4건(참여자 1,5,6,9), 양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7),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4)이다.

함은 3커플만 수행하였고, 3커플 모두 남편 부모가 결정하였다(참여자 1,2,8).

이바지는 7커플이 수행하였고, 아내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5건(참여자 1,2,6,8,9),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4),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0)이다.

답바지는 4커플이 수행하였고, 신랑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1,6,9),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4)이다. 답바지의 경우 이바지를 수행한 부부에게서만 나타났다.

답례품은 5커플이 수행하였고,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3건(참여자 3,9,10), 양가부모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7), 아내가 결정한 경우가 1건(참여자 1)이다.

신혼집은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경우가 4건(참여자 2,4,7,9), 사택인 경우가 3건(참여자 3,5,8), 남편부모가 마련해주신 경우가 2건(참여자 1,10), 남편이 마련한 경우가 1건(참여자 6)이다.

혼수는 부부가 함께 기여한 경우가 4건(참여자 2,3,5,8), 아내가 마련한 경우가 4건(참여자 4,6,7,9), 아내부모가 마련해주신 경우가 1건(참여자 1), 남편부모가 마련해주신 경우가 1건(참여자 10)이다.

## ■ 소결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진행여부와 주 결정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진행여부를 살펴보면 양가 인사, 상견례, 택일, 리허설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은 모든 참여자들이 수행하였으며, 폐백 및 예복/한복의 경우 한 부부를 제외한 모든 부부가 수행하였다. 현금예단, 현물예단, 봉채비, 꾸밈비, 함, 이바지, 답바지, 답례품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하였다.

주 결정자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준비한 항목은 양가인사, 상견례, 택일, 신혼여행, 예물, 봉채비, 답례품, 신혼집, 혼수이다. 그 외의 경우 리허설 촬영, 결혼식은 아내가 주 결정자이며, 폐백과 꾸밈비, 함, 답바지는 남편 부모, 이바지, 현금예단 및 현물예단은 신부부모, 예복/한복은 양가부모가 주 결정자로 나타났다.

준비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부부가 원해서 수행하는 항목이 있었던 반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진행하기보다 결혼 업체에서 패키지로 진행되는 경우나 양가 부모님 또는 주변의 의견으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결정자 또한 과거에 비해 부부가 주결정자인 항목이 증가하였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항목과 그로 인해 결혼 당사자인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과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5개의 구성요소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결혼에 대한 생각’, ‘배우자 선택’, ‘갈등 단계’, ‘결혼 결정 단계’, ‘결혼 준비 단계’이다.

첫째,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는 여자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음’, ‘결혼으로 본인이 재평가됨’,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 ‘인생에서 당연한 과정’, ‘원가족의 영향’이 있었다. 여성의 경우 연구 대상자들이 기혼이기 때문에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또는 유보적이었던 경우였으며 이는 결혼 의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 당사자가 인식하는 결혼이라는 제도와 결혼적령기의 청년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혼과 결혼 이후의 태도에 대하여 주도적일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남성생계부양자규범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남성이 결혼에 대해 가지는 부담감이 크다는 선행연구(전효원,2015)를 뒷받침한다. 양성평등적이고 여성의 개인적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태도는 요즘의 결혼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결혼은 원가족과의 적절한 분리과정이 필연적이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김예리,2008)와 의견을 같이 한다. 또한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늦게 해도 상관없는 유보적인 태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군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 시기가 여성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업인 결혼 연령에 대해 비교적 허용적이며, 출산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배우자 선택에서는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행복한 연애 과정’, ‘외로움’으로 인해 배우자를 선택하였고, 남성 또한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행복한 연애 과정’으로 나타났고, ‘결혼 적령기의 연애 상대’로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행복한 연애과정을 통하여 배우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여성의 경우 외로움을 느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 결혼적령기의 시기에 교제를 하고 있는 연애 상대를 자연스럽게 배우자로 선택한 참여자가 비교적 많았다. 이는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이 인식에 작용하는 것으로 남성이 취업 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가 되었을 때 결혼을 생각하게 되며, 그 시기의 연애 상대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갈등 단계에서는 여자는 ‘자유를 상실한다는 생각’, ‘금전적 어려움’, ‘확신의 부족’, ‘가족의 반대’가 있었으며, 남자는 ‘확신의 부족’, ‘금전적 어려움’, ‘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갈등 단계에서 여성의 경우 결혼 이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일과 경력의 단절 또는 제약으로 인한 부분으로 결혼에 대해 갈등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후에도 결혼에 대한 확신이나 적절한 시기 등으로 결혼 결정을 유보하게 되고,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갈등 단계에서 여성에 비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거지 마련, 혼수 등 결혼에 필요한 비용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부담하는 ‘반반 결혼’을 비롯하여, 상황에 따라 여성이 결혼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더 많이 책임지면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라는 사회적 통념이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결혼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있었으므로, 종사하고 있는 근무 환경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결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결혼 결정 단계에서는 여성은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전환기의 필요’, ‘가족의 압력’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연령’, ‘상대에 대한 신뢰’, ‘자연스러운 발전’, ‘가족의 압력’,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본인이 설정한 결혼의 적령기 또는 자녀 출산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연령이 결혼 결정에서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본인의 상황에서의 변화와 전환이 필요하여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하여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연애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발전으로 결혼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한 결혼을 서두르는 가족의 압력을 느끼는 경우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8·90년대의 남아선호사상으로 남녀 성비<sup>5)</sup>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는 세대로, 80년대 초반 의료 기술의 발달로 초음파를 통한 태아 성별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여아 낙태가 암암리에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에는 “백마 띠 여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속설이 돌아, 여아 낙태가 더욱 성행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8·90년대 출생성비는 자연 성비 105를 뛰어넘어 1990년의 성비는 116.5명까지 증가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1997·1999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성비

5)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로 계산한다.

는 110명 이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981~1988년생 남성이 292만 명이고, 1983~1990년생 여성이 255만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7만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적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남성들의 부모들은 아들이 적당한 상대와 연애 중이면 결혼에 대해 압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여성은 ‘양가 사이에서 조율’, ‘가족의 의견대로 준비’,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금전적인 준비가 됨’, ‘준비과정의 어려움’, ‘갈등 해소’, ‘여자의 역할과 권한이 큼’, ‘부부가 주도적으로 준비’, ‘준비 과정의 즐거움’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 가족의 의견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준비 단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경우 부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한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여성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은 직장의 업무로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는 관념이 아직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이 ‘집안일’에 대해서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녀의 인식과 태도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

신혼부부의 결혼결정요인은 배우자 선택, 결혼결정요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배우자 선택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순위는 성격(10명), 직업/직장(6명), 가정환경(6명), 종교(5명), 외모/키(4명), 애정표현(3명), 재산(2명), 책임감(2명), 취미(2명), 가치관(2명), 대인관계(2명), 매력(1명), 나이(1명), 유머감각(1명), 정서적 성숙(1명), 친밀감(1명), 술·담배여부(1명) 이다. 과거 부모세대의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정민자,1987) 결과와 비교하여 봤을 때, 과거와 동일하게 ‘성격’은 높은 순위로 유지되었으며, ‘직업/직장’의 경우 순위가 낮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2번째로 높은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반면 ‘건강’의 경우 과거에는 중요한 1순위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요인으로 의학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는 거의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 순위로 ‘종교의 차이’가 언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도 결정 요인에 크게 작용함으로 무교보다는 종교를 가진 참여자들은 종교의 일치를 결혼결정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이 기독교인 경우 같은 기독교인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무교이거나 불교인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연애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었다. 남성의 배우자 선택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성격(8명), 가치관(8명), 외모(6명), 가정환경(5명), 건강(4명), 성적 매력(4명), 취미(3명), 자립심(3명), 대인관계(2명), 성취욕(2명), 정서적 성숙(2명), 종교(2명), 나이(1명) 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정민자,1987) 결과와 비교하

여 봤을 때, 과거와 동일하게 ‘성격’은 높은 순위로 유지되었으며, 여자와는 비교적으로 남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치관’을 높은 순위로 언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거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던 ‘외모’가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취미’의 경우에도 여러 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으로 여가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20-30대 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본인의 여가시간을 함께 즐기거나 존중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로는 여성의 경우 ‘건강’을 크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정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성은 결혼을 결정할 때, 상대를 자녀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해야하는 배우자로서 인식하는 것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남성들은 결혼결정요인으로 ‘자립심’을 언급함으로, 남성들의 결혼에 대한 역할의 부담감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심이 높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결혼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참여자 7명에게 나타났고,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참여자 6명에게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이 참여자 2명,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가 2명, 주위의 조혼 권유가 2명, 부모의 결혼 재촉이 1명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결혼결정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참여자 7명에게서 나타났고,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참여자 7명에게서 나타났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결혼을 위한 충분한 소득 확보가 3명, 부모의 결혼·주택마련비용 지원이 참여자 2명, 부모의 결혼 재촉이 1명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결혼적령기 규범 준수가 결혼 결정의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 후 역할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차이점으로는 여자는 주위의 조혼 권유가 있었으며, 남자의 경우 부모의 결혼 재촉이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결혼적령기에 대한 개인과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결혼 후 역할 취득에 대한 욕구·자신감이 결혼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 3)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

신혼부부의 결혼준비사항은 결혼과 관련된 절차들의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한 질문지를 통하여 진행여부와 주 결정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양가 인사, 상견례, 택일, 리허설촬영,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은 모든 참여자들이 수행하였으며, 폐백 및 예복/한복의 경우 한 부부를 제외한 모든 부부가 수행하였다. 현금예단, 현물예단, 봉채비, 꾸밈비, 함, 이바지, 답바지, 답례품의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주 결정자를 살펴보았을 때 부부가 함께 준비한 항목은 양가인사, 상견례, 택일, 신혼여행, 예물, 봉채비, 답례품, 신혼집, 혼수이다. 그 외의 경

우 리허설 촬영, 결혼식은 아내가 주 결정자이며, 폐백과 꾸밈비, 함, 답마지는 남편 부모, 이바지, 현금예단 및 현물예단은 신부부모, 예복/한복은 양가부모가 주 결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부부가 주 결정자인 항목이 증가하긴 하였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다르게 결정된 항목과 그로 인해 결혼 당사자인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까지 많은 항목에서 부모님들이 주 결정자인 항목이 여러 개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혼 준비에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뿐 아니라 청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혼례 가치 및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하다. 또한 폐백의 경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진행하기보다는 결혼식 업체에서 분식 이후 폐백도 함께 진행하는 패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부의 주도적인 결정이 아닌 업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따라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결정되고 준비되는 항목들이 웨딩업체의 과도한 권유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결혼 준비 정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유래와 의미들을 부부가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혼례 가치에 대한 예비부부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 인한 결혼 및 가정에서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차이가 없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성 평등 의식 수준을 향상하여 결혼결정과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을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극복하고, 남녀 모두가 성별로 인한 역할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편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년의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또한 지켜져야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사회조사 결과’에서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을 처음으로 추월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노동시간 정책, 모성보호 제도 등이 국가기관이나 대기업 위주에서 수행되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질 때, 일과 가정의 양립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가 조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단위 사업과 가족친화사업의 확산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예비부부 및 청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의 활성화 또한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가수준의 부모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PPT와 부모교육 매뉴얼,



강의 자료를 개발하여 2017년에 부모교육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나, 성인기에 대한 내용에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예비부부 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및 혼례가치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지침에 수행사업으로 예비부부·부모지원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부부 부모를 위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예비부부와 예비부부 부모를 위한 혼례가치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작은결혼정보센터의 운영 등 건전한 혼례가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작은결혼식장(공원,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허례허식 없는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 개선과 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결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비부부 및 청년들을 위한 제언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위한 목적이므로, 미혼 또는 비혼자를 대상으로 결혼관, 결혼 연기, 결혼 의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최근에 경험한 연구 대상자를 통하여 경험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솔직한 진술을 바탕으로 결혼에 대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혼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를 한 성별로 고정하지 않았으며, 남녀 개인이 아닌 신혼부부로 선정하여, 함께 결혼한 부부 내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의 결혼에 대한 생각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경험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할 때 성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결과를 각각 도출하였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과로도 도출한다면 부부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또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결혼한 지 3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참여자의 결혼 당시의 연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 생각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결혼 연령을 더욱 세분화하여 연구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유미 (2009).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순천향대 석사학위논문.
- 강연아 (2009). 예비부부의 결혼준비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건강가정컨설팅연구소 (2017). 결혼과 가족생활. 시그마프레스.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19.10. 자료인용.
- 권빛나 (2010). 결혼 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권오재 (2017). 결혼의 계층화와 전통적 성 정체성의 고착: 부모 자식이 성인 자녀의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권혁출 (2014). 재혼모가 경험하는 재혼가족 갈등극복에 관한 현상연구. 백석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원·김태현 (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김명나·이정우 (1999).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신혼기주부와 기혼딸을 가진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6), 41-57.
- 김모란 (1995). 한국사회의 혼인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 533-558.
- 김신연 (2005). 궁중과 사대부가의 혼례 풍속 비교 연구. 문명연지, 6(3), 135-164
- 김양희·문영소·박정윤 (2003).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7, 53-72.
- 김예리 (2008).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1994). 도시 중산층에서의 핵가족화와 가족 내 위계관계 변형의 문화적 분석. 한국문화인류학, 25, 183-222.
- 김지미 (2014). 신혼기 여성의 결혼준비 및 결혼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 김형범 (2009). 신체 장애인의 결혼 유지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선 (1997). 배우자 선택 과정과 결혼의 질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박희성 (2001). 텔파이조사를 이용한 결혼준비진단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125-144.

- 김혜선·신수아 (2002). 결혼준비도 척도 개발 연구 :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41-53.
- 문승연 (2011). 정신장애인의 결혼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 석사학위논문.
- 박다운 (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2), 29-65.
- 박민자 (1991). 도시 중간계층의 혼인거관행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또하나의 문화.
- 박선웅 (1999). 혼례의 문화적 모순과 상품화. 가족과 문화, 11(1), 79-101.
- 박소현 (2017). 대학생의 결혼관이 사회적 예비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 석사학위논문.
- 박숙자 (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또하나의 문화.
- 박신애 (2016). 만혼 비혼자의 결혼연기 요인 및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임선영 (2009).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9-44.
- 반수진 (2019). 부모의준 미혼독신들의 생활양식과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 석사학위논문.
- 백미희 (2019). 자아분화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과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광운대 석사학위논문.
- 손지성 (2017). 한국 빈곤층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 포기에 대한 연구 : 빈곤 경험과 생계부양 책임감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유가호 (2007). 해방 이후 혼전 교제와 배우자선택 과정의 변화. 한국학논집, 34, 319-346.
- 유영주·오윤자·이정연 (1995).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I. 경희대학교 논문집, 24, 147-171.
- 윤구원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 박사학위논문.
- 윤유경 (2018).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 석사학위논문.
- 이군희 (2014). 연구방법론의 이해. 북넷.
- 이근환 (2019). 자기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일치성과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이동민 (2018). 이성교제 중인 30대 여성의 결혼 연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립 (2019). 미혼인구의 결혼 관련 태도, 보건복지포럼, 268, 6-18.

- 이세란 (2016).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결혼결정 과정 30-40대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상담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2018).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1), 113-114.
- 이현송 (1997). 배우자 선택과정의 변화와 결정요인. 가족학논집, 9, 3-28.
- 이현주·박서정·지영숙 (2003). 혼례비용 및 혼례 준비과정 표준화. 생활과학, 6, 119-134.
- 장주영·옥선화 (2008). 결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6(4), 1-13.
- 장현정 (2010). 여성의 재혼경험을 통해 본 결혼의미의 구성과정 : 전남지역 중소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 박사학위논문.
- 전효원 (2015). 혼인적령기 청년들의 혼인결정요인 탐색.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 (1987). 배우자 선택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일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18, 105-126.
- 정유림 (2019). 기혼 여성의 부모 거주형태와 결혼행복감의 관련성. 대구한의대 박사학위논문.
- 정유화 (2018). 미혼남녀의 가족건강성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결혼이미지의 매개효과. 인제대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17). 30대 초반 대기업 정규직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 분석 : 규범과 선택 사이.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정차숙 (2019).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가치관 및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석사학위논문.
- 조희선·류미현 (1999).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79-190.
- 청와대 (2017). 국정과제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 2019.10. 자료 얻음.
- 채민정 (1997). 여성의 결혼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결혼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채민진 (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최닷음 (2019). 부부의 성인애착과 자기자비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숙명여자대 석사학위논문.
- 최신덕 (1979). 배우자선택과 결혼준비. 한국가족학회, 1, 71-78.
- 통계청 (2018).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9). 2018년 혼인 이혼 통계.
- 한서은 (2018). 기혼여성근로자의 결혼만족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 석사학위논문.
- 홍구화·권빛나 (2012). 결혼결정 상황요인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족과 상담,

2(1), 43-57.

홍나영·이은진·박선희 (2002).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1). 141-156.

Adams, B. N. (1980). The Family.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Kang, s. (1991). Family Decision Making in Korea: An Empirical Study on the Newly Forming Family.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12(1), 245-296.

# 부 록

부록 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부록 2: 연구 참여 및 동의서

부록 3: 질문지

<부록-1>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연구 참여에 관한 설명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가족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현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정과정과 요인 및 준비사항을 파악하여 예비부부 및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의 정보와 비밀사항은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 자료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의 결과가 유익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연구과제: 신혼부부의 결혼결정과정과 준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지도교수: 정민자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 연구자: 김 현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가족학전공)
- 연락처: 휴대전화 기재 / 메일주소 기재





<부록-3> 질문지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해주세요. (남/여)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세
  
3. 귀하의 종교는?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무교                    ⑤기타(                    )
  
4.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이하) ②전문대재학 ③전문대졸  
   ④대학교재학 ⑤대졸    ⑥대학원재학 ⑦대학원졸(이상)
  
5. 귀하의 결혼 당시 직업은?        \_\_\_\_\_
  
6. 귀하의 결혼 당시 본인의 월 소득은? (단위: 만원)    ①150이하 ②150~200 ③200~250 ④250~300  
   ⑤300~350 ⑥350~400 ⑦400~450 ⑧450이상
  
7. 귀하의 결혼 시기는?                \_\_\_\_\_년 \_\_\_\_\_월
  
8. 귀하의 교제 시작 시기는?        \_\_\_\_\_년 \_\_\_\_\_월
  
9. 귀하의 결혼 전 연애경험은?    ①1회                    ②2회                    ③3회                    ④4회  
   ⑤5회                    ⑥6회                    ⑦7회                    ⑧8회 이상

■ 다음은 귀하의 [결혼결정과정] 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1. 결혼 전, 배우자와의 연애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3. 결혼 전, 배우자 외의 연애 경험 및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4. 결혼 전, 혼전성관계 또는 동거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5. 결혼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6. 귀하의 원가족은 본인의 결혼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7. 결혼을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나 사건이 있습니까?

8.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9-1.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9-2.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9-3. 어려움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 결혼결정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상태/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1. 결혼결정과정에서 배우자의 마음/상태/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2. 결혼결정과정에서 가족들의 마음/상태/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3. 그 당시로 돌아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 다음은 귀하의 [결혼결정요인] 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배우자와 결혼을 결정한 요인에 5순위를 매긴다면 무엇입니까?  
(가정환경, 가치관, 건강, 나이, 대인관계, 매력, 성격, 성적매력, 성취욕, 유머감각, 애정표현, 외모, 자립, 정서적성숙, 재산, 직업, 출생순위, 취미, 학력 등)
2. 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립, 경제적 준비, 건강, 자아실현, 미래계획, 정서적 외로움, 혼기에 대한 부담 등)
3. 배우자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립, 경제적 준비, 건강, 자아실현, 미래계획, 정서적 외로움, 혼기에 대한 부담 등)
4. 나의 가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가족관계, 부모연령, 건강, 미래계획, 정년, 결혼에 대한 압력 등)
5. 배우자 가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립, 경제적 준비, 건강, 자아실현, 미래계획, 정서적 외로움, 혼기에 대한 부담 등)
6. 그 당시로 돌아가 결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7.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 다음은 귀하의 [결혼 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행여부에  해주시고, 주 결정자를 작성해주시시오. (부부)

	항목	내용	진행여부	주 결정자
1	양가 인사	신부집 인사 / 신랑집 인사		
2	상견례	양가 식사		
3	택일	결혼식 날짜 정하기		
4	리허설 촬영	웨딩촬영/스튜디오촬영		
5	결혼식	분식		
6	폐백	폐백		
7	신혼여행	신혼여행		
8	예물	반지, 세트, 시계, 가방, 금 등		
9	현금예단	현금		
10	현물예단	이불,반상기,은수저,애교예단 등		
11	예복/한복	맞춤정장, 코트, 한복 등		
12	봉채비	부모님, 형제자매 옷값 등		
13	꾸밈비	현금 또는 물품		
14	함	꾸밈비로 산 물품		
15	이바지	이바지음식, 과일 등		
16	답바지	이바지 답례		
17	답례품	하객 답례		
18	신혼집	매매,전세,월세,합가 등		
19	혼수	가전제품, 집기류 등		
20	그 외			
21				
22				
23				
24				
25				

# Abstract

##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Proces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and Premarital Preparation

Kim Hye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or: Professor Jung Minja

Family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of the family cannot be emphasized enough. Marriage is the initial step of the organization of a family, which is an important task. However, recently, the young generation considers marriage as an option, and as more people give up on marriage due to difficulties, which leads to the marriage rate.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enomena and conflicts young peopl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the wedding to resolve difficulties and support them to proceed with the wedding happily.

This study is a study of the proces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and premarital preparation, which investigated a series of experiences concerning the processes through which young people reach marriage.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newlywed couples residing in U City and analyzed them, apply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procedure and metho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proces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the same five components appeared for both sexes, including 'thinking of marriage', 'choice of a spouse', 'conflict stage', 'marriage decision stage' and 'marriage preparation stage.'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dividing them into the choice of a spouse and the decision to marry. In the factors of choosing a spouse, women's ranking was personality, job/workplace, family environment, religion, appearance, romanticism, property, responsibility, hobby, values, interpersonal relations, charm, age, sense of humor, emotional maturity, intimacy and alcohol/smoking. Men's ranking was personality, values, appearance, family environment, health, sexual appeal, hobby, independence, interpersonal relations, achievement need, emotional maturity, religion and age. The factors of the decision to marry were in the following order for women: the

observation of the norms during the marriageable age, the need for and confidence in the acquisition of roles after marriage, parents' support for parents, securing incomes for marriage, recommendation of marriage from the surrounding people and parents' urging for marriage. For men, the factors were the observation of the norms during the marriageable age, need for and confidence in the acquisition of roles after marriage, parents' support for expenses, securing incomes for marriage, and parents' urging of marriage.

Third, for newlyweds' premarital prepar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rocedures were made and the main decision-maker. All the participants performed both families' greetings,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the choice of the wedding day, rehearsal photography, wedding ceremony, honeymoon, and wedding gifts, while all but one couple performed pyebaek and ceremonial dress/hanbok. They selectively performed cash wedding gifts, wedding gifts in kind, ornament expenses, ham, ibaji, dabaji and return gifts. The main decision-maker was the married couple for both families' greetings,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choice of the wedding day, honeymoon, wedding gifts, the bridegroom's wedding expenses, return gifts, matrimonial home and marriage expenses; the bride for rehearsal photography and wedding ceremony; the groom's parents for pyebaek, ornament expenses, ham and dabaji; the bride's parents for ibaji, cash wedding gifts, wedding gifts in kind and the parents in both families for ceremonial dress/hanbok.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improve recognition so that the burden of marriage according to sex can be alleviated and that conflicts can be overcome by enhancing young people's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Second, young people should keep work and life balance and get support so that a family-friendly culture can be creat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and program for the value of the wedding ceremony for premarital couples and their parents to spread a healthy wedding culture. Fourth, for the settlement of a marriage culture without empty formalities and van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cognition and spread the system at a state level.

This study that investigated the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newlyweds' decision to marry and premarital preparation, would understand the phenomena of marriage, based on the concrete situations and statements of the research subjects who have recently experienced a wedding.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did not fix the research subjects to one sex, could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xes, not as individuals but as married couples, and understood the continuous experience from the thinking of marriage through the process of premarital preparation.

Key words: Newlyweds, Marriage, Process of decision to marry, Factors of decision to marry, Premarital preparation